

농업·농촌경제동향

2015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yslee@krei.re.kr 박미성 mspark@krei.re.kr
심민희 min2727@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박지원 jione1105@krei.re.kr

연락처 전화: 02-3299-4363 팩스: 02-964-5631

목 차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	15
2. 농림어업 취업자	19
3. 농축산물 수출입	20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9
2. 엽근채소	34
3. 양념채소	40
4. 과일	49
5. 과채	55
6. 축산	63

특별주제

고구마 수급 모니터링	73
매실 수급 모니터링	87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개선	96

요 약

I. 국내경제 동향

- 경제성장세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 민간소비 회복 지연으로 둔화됨. 201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는데 그침.
- 2015년 1/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보다 증가함. 2015년 1/4분기 총수출은 LCD, 자동차 등 재화 수출이 줄었으나 서비스수출이 늘어 전기 및 전년 동기와 동일함.
- 2015년 1/4분기 취업자는 25,267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11천 명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가 더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5년 2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담배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대비 5.5% 증가함.
-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3분기 연속 하락하여 2015년 1/4분기에는 1%를 하회함. 생산자물가는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대비 3.6% 하락하여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가중됨.
- 통화량 증가세가 확대됨. 2015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은 전월 대비 1.6% 증가했고, 광의통화(M2)는 1.0% 증가함.
- 2015년 3월 금리는 장기와 단기 모두 하락함.
- 2015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으나 원/엔 환율은 하락함. 3월말 환율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함.

Ⅱ. 농촌경제 동향

- 식료품 생산자물가는 소폭 상승함. 2015년 1/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7로 전년 동기대비 0.4% 상승하고 전분기 대비 1.6% 상승함.
- 2015년 1/4분기 품목별 도매가격은 전분기와 대비하여 무와 건고추가 하락한 반면, 마늘, 양파, 사과, 배는 상승함.
- 농업용품 생산자물가는 사료가 하락하였으나 그 외에는 모두 상승함.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상승함. 2015년 1/4분기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로 전년 동기대비 0.4%, 전분기 대비 3.1% 상승한 수준임.
- 2015년 1/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6으로 전분기 대비 2.6% 상승하였으나, 2011~13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함. 2015년 1/4분기 취업자수는 109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적고 전분기보다는 21.7% 감소함.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에 비해 0.5% 적은 수준임.
- 2015년 1/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는 18~35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감소함.
- 2015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입액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대EU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52.2% 늘어났으며, 수입이 18.7% 늘어남.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2.3% 감소하는 한편 수입액은 12.7% 증가함.

Ⅲ. 특별주제 시사점

1. 고구마 수급 모니터링

- 고구마는 전분·주정 등 가공 원료로서의 이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00년대 초 산업의 위기를 맞았음.

-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건강식품으로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고구마 생산과 소비 구조는 크게 변화함.
- 고구마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종래의 가공용 고구마 대신 호박고구마 등 생과용 품종을 선택하거나 중·소과를 생산하는 조기재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감소함. 생산성을 안정시키고 높일 수 있는 품종 개발이나 재배 기술 개선이 필요함.
- 고구마 재배·저장기술 발달 및 저장시설 확충으로 출하가 연중 분산되고 시기별 가격 편차도 크게 축소됨. 따라서 향후 저장비용을 고려한 출하시기와 품종 선택 전략 수립이 요구됨.
- 가락시장에서 연평균 반입량 증가율에 비해 연평균 가격 하락률이 작아 고구마 수요는 증가함. 한편, 품종별로는 호박고구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밤고구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등 품종별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품종 선택에 활용해야 함.
- 소비자는 고구마를 건강에 이롭고 다이어트를 위해 편리한 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맛도 좋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는 호박고구마와 같이 당도가 높고 수분이 적당한 품종을 선호하므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지도 보급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함.
- 냉동고구마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고구마의 수요를 잠식하지 않도록 가공 수요에 적합한 품종이나 상품을 개발하고 계약재배 등에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매실 수급 모니터링

- 매실은 2000년대 초에 그 효능이 드라마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함. 매실은 전통적인 주산지인 전남, 경남 지역뿐 아니라 경기, 충남 지역까지 재배지역이 크게 확대됨. 이러한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생산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 매실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공급량 증가에 대한 가격 하락폭이 커져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산 매실의 가공 비율이 1990년대 후반에는 생산량의 평균 40%였으나, 최근 10% 내외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매실 가공품 소비에서 매실 장아찌나 효소 등을 가정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생과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
- 국내산 매실의 가공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료 및 기타’의 수요는 국내산 매실 수요 확대에 연결되지 못하고 수입산 가공원료를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산 매실 가공비중이 가장 높은 매실 음료가 국내산 매실 수요 확대에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시판되고 있는 매실 가공품의 경우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매실 효능 인지, 선호 속성 및 선호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가 병행되어야 함.
- 매실 음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실 가공품은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 등에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매실 가공품 생산업체들의 연합 홍보·마케팅 및 매실 가공품에 대한 품질·안전성을 인증하는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시중에서 구입하여 소비하는데 익숙한 젊은 세대의 향후 매실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임.

3. 발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개선

-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는 이행조건(cross compliance) 등 일정한 지불근거를 전제로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WTO 출범이후 현재 농업분야의 중요한 정책수단임.
- 직불제의 지불근거는 가격지지제도 폐지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경영안정 보장, 조건 불리성에 대한 보전, 다원적기능 확산에 대한 보전, 국내외 생산성 격차에 대한 보전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크게 경영안정형과 공익형 또는 다원적기능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직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기본형(기본지불)으로 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가산형(가산지불)으로 운영해야 바람직함.
 - 기본지불: 쌀 고정직불제, 발농업 직불제

- 가산지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 현행 발농업 직접지불제는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후 2013년 2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시범사업이후 발견된 발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필요한 미비 사항을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법)에 완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발농업 직불제(이하 받고정지불)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불 근거: 발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다원적기능의 보전과 확산임.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액의 보전으로 발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불 기준: ① 기존 발농업 직불제 단가, ② 추가적인 시장개방 손실보전액, ③ 발 농업의 다원적가치 등을 종합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개편 기준단가: 현행 발농업 직불제 단가 40만원/ha에 시장개방 손실보전액 337천원, 다원적기능 보전액 225천원을 합산한 지불단가는 962천원임.
지불단기(안)은 재정적 여건과 타 직불제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 대상 품목의 확대 방안: 식량,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기타작물, 시설작물 등의 포함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전체 품목 확대(1안), 전체 품목에서 시설작물 제외(2안), 전체 품목에서 과수품목 제외(3안), 전체 품목에서 시설작물과 과수품목 제외(4안)로 정리 가능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산과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면적은 47만 5천 ha이지만, 2011~2013년 평균 신청 면적은 10만 2천 ha로 대상 농지의 21.5%로 저조한 실정임. 이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불일치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발농업 직불제의 개편에 따라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발농업 직불제(기본형)에 추가하여 지불하는 형태(가산형)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 논·밭·원 50원/m², 초지 25원/m²(국고 80%, 지방비 20% 부담)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가산형으로 전환된다면 목적 부합성과 타직불제와의 형평성 및 재정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기존 직불 단가의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임.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직불단가: 현행 단가(50만원/ha)의 30%, 50%, 70%, 100% 등 세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세부 개선 방안: 타직불제와의 형평성과 재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직불금 상한지급 기준의 마련 필요. 지역공동체와 지역농업의 유지를 위해 밭농업 하한면적의 완화 필요. 지방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고 부담률의 인상이 필요.
- 현행 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면적 축소의 요인이 되는 농지 임대를 금지하는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둘째, 이행조건의 준수를 위해서는 제도별 이행조건에 대한 인식과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I. 국내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

- 경제성장세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 민간소비 회복 지연으로 둔화됨. 201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는데 그침. 이는 전년 동기의 3.9%보다 낮고 전분기인 2014년 4/4분기의 2.7%보다 낮은 수준임.
 - 부문별로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증가로 전환되고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가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전기가스수도사업이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증가함.
 - 산업별로 제조업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0.4% 증가하고, 농림어업은 채소, 과일 등이 늘어나면서 2.9% 증가함.
- 2015년 1/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6% 증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5년 1/4분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설건물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7.5%,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함. 2015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기계류가 감소하여 전분기 수준 유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함.
- 2015년 1/4분기 총수출은 LCD, 자동차 등 재화 수출이 줄었으나 서비스수출이 늘어 전분기 및 전년 동기와 동일하였고, 총수입은 거주자 국외소비 및 운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5%,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심민희 연구원(min2727@krei.re.kr)이 작성하였음.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o					2015 ^o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DP 성장률	2.9	2.1	2.7	3.2	3.5	3.3	3.9	3.4	3.3	2.7	2.4
최종소비지출 (민간)	2.2	1.5	2.2	2.4	2.6	2.0	2.7	1.7	2.0	1.8	1.9
총고정자본형성 (건설)	3.3	-3.2	4.3	4.9	6.5	3.1	5.8	3.3	3.3	0.7	2.5
(설비)	5.5	1.3	8.9	7.4	3.5	1.0	4.1	0.2	2.3	-1.5	0.7
총수출	-0.8	-12.3	-3.2	2.3	11.6	5.8	7.2	7.7	4.2	4.2	5.7
총수입	4.3	5.6	6.0	2.5	3.1	2.8	4.2	3.4	2.2	1.4	0.0
총수입	1.7	-0.3	1.2	0.9	5.0	2.1	3.2	2.9	2.3	0.1	1.8

주: 2014^o, 2015^o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GDP성장률은 상반기에 2.7%에 그치겠으나 하반기에는 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올해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3.1%로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3.4%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소폭의 소득 개선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확대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내수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증대되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4			2015 ^{e)}			2016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7	3.0	3.3	2.7	3.4	3.1	3.4
민간소비	2.1	1.5	1.8	2.1	2.6	2.3	2.8
설비투자	7.5	4.2	5.8	5.2	5.6	5.4	5.6
건설투자	1.8	0.4	1.0	3.1	3.7	3.4	2.3
상품수출	3.7	1.0	2.3	-0.6	6.3	2.9	3.8
상품수입	2.1	0.3	1.2	1.1	4.9	3.0	4.0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5.4.9.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수정)」 참고
2. 2015^{e)}, 2016^{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5년 1/4분기 취업자가 늘어났으나 경제활동인구가 더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상승함.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타 산업과 달리 오히려 감소함.
 - 2015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635.6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 하였으나 취업자수는 2,526.7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침.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함.
 -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7.4% 감소함.
- 2015년 3월 취업자수는 2,55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30만 6천명) 증가함. 경제활동인구수가 전년 3월대비 1.5% 늘어나 실업률은 3.7%(계절조정)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하였으나 전월보다는 하락함.
 - 2015년 3월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25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3% 감소 했으며, 전월보다는 감소세가 완화됨.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13	2014					2015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경제활동인구	25,873	25,945	26,767	26,810	26,622	26,536	26,356	1.6
(경제활동참가율)	61.5	61.3	63.1	63.0	62.4	62.4	61.5	-
취업자	25,066	24,913	25,790	25,927	25,767	25,599	25,267	1.4
· 농림어업	1,520	1,179	1,631	1,603	1,395	1,452	1,092	-7.4
· 광공업	4,200	4,294	4,334	4,360	4,384	4,343	4,428	3.1
(제조업)	4,184	4,279	4,319	4,346	4,374	4,330	4,418	3.2
· 건설업	1,754	1,683	1,813	1,833	1,854	1,796	1,756	4.3
실업자	807	1,031	977	884	854	937	1,089	5.6
실업률(계절조정)	-	3.5	3.7	3.5	3.5	-	3.7	-

자료: 통계청

월별 고용 변화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4.3		2015. 2		2015. 3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6,187	3.1	26,398	1.5	26,577	1.5
취업자 (고용률)	25,163 (59.4)	2.6	25,195 (58.8)	1.5	25,501 (59.5)	1.3
· 농림어업	1,327	-3.0	1,036	-7.7	1,257	-5.3
· 광공업 (제조업)	4,298 4,284	3.4 3.5	4,443 4,433	3.6 3.7	4,412 4,400	2.7 2.7
· 건설업	1,699	0.3	1,732	4.1	1,777	4.6
· 도소매·음식숙박업	5,790	6.2	6,009	2.4	5,924	2.3
· 전기·운수·통신·금융	3,038	1.0	3,033	-0.9	3,030	-0.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9,012	2.0	8,943	1.4	9,100	1.0
실업률 (계절조정)	3.9 (3.5)		4.6 (3.9)		4.0 (3.7)	

자료: 통계청

- 2015년 3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제조업(11만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2천명), 건설업(7만9천명), 도매 및 소매업(7만 4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7만명), 금융 및 보험업(-6만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7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5만3천명) 등에서 감소함.

3. 소비

- 2015년 1/4분기 민간소비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1.5%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나 전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됨.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됨.
- 2015년 2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 대비 3.9%), 음식료품·담배 등 비내구재(전월 대비 4.2%)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8% 증가, 전년 동월대비 5.5% 증가함.

소비동향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p	2월p
소매 판매	0.7	1.7	2.4	0.8	1.5	1.9	-2.9	5.5
(내구재) ¹	0.3	5.1	5.6	2.5	5.7	6.9	10.2	0.3
(준내구재) ²	2.1	-0.6	-1.8	-2.2	1.4	0.4	-3.2	0.7
(비내구재) ³	0.4	0.8	2.6	1.4	-0.5	-0.1	-9.0	10.8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4년 4/4분기 가구의 전년 동기대비 소득 증가율이 2.4%로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으나 소비지출 증가율은 0.9%로 전년보다 하락함.
 - 2014년 4/4분기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
- 2014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6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실질로는 1.4% 증가)함.
 - 취업자수 증가에 의한 근로소득(3.3%), 7월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등에 따른 이전소득(7.8%) 등이 증가
- 2014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0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실질로는 0.1% 감소)함.
 - 가정용품·가사서비스(5.5%), 기타상품·서비스(4.0%), 음식·숙박(3.3%), 교통(3.1%) 등의 지출이 증가
 - 그밖에 통신(-4.1%)과 의류·신발(-2.9%), 보건(-2.0%) 등이 감소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소득	2.1	1.7	2.5	2.9	1.7	3.4	5.0	2.8	3.0	2.4
(경상소득)	2.3	2.1	3.0	2.8	1.7	3.2	4.4	2.9	3.0	2.3
(비경상소득)	-3.6	-8.5	-10.7	4.8	3.1	8.6	20.9	-0.4	2.2	8.1
소비지출	0.9	-1.0	0.7	1.1	3.0	2.8	4.4	3.1	3.3	0.9
(식료품·비주류음료)	-0.3	-1.6	1.1	-2.5	2.3	0.8	2.1	2.0	-0.9	0.1
(의류·신발)	2.2	4.8	0.5	0.9	2.6	-0.1	-1.2	2.3	2.9	-2.9
(교통)	1.9	1.9	0.9	3.4	1.6	8.6	12.2	5.9	13.7	3.1
(교육)	-1.8	-6.9	0.9	0.7	-0.2	0.4	2.6	0.5	-1.1	-0.5
(음식·숙박)	2.7	-0.1	0.4	4.6	5.2	4.7	6.1	4.9	5.2	3.3

자료: 통계청

4. 물가

-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3분기 연속 하락하여 2015년 1/4분기에는 1%를 하회함. 2015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100.0 기준)는 109.4로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이 2014년 2/4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여 0.6%로 낮아짐.
 - 부류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이 전년 동기보다 0.6% 하락했으나 서비스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함.
- 2015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로 전월과 비슷했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0.3% 상승하는 데 그침.
 - 전월에 비해 교통, 음식·숙박,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은 상승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 식료품·비주류음료, 오락·문화 등은 하락함.
 - 전년 동월에 비해 주류·담배, 음식·숙박, 교육,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은 상승하였고, 교통은 하락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7.7 (1.3)	109.0 (1.2)	108.8 (1.1)	109.1 (1.6)	109.4 (1.4)	108.9 (1.0)	109.4 (0.6)
상 품	110.1 (1.1)	111.1 (0.9)	111.3 (1.0)	111.4 (1.6)	111.4 (1.0)	110.3 (0.2)	110.6 (-0.6)
농축수산물	111.9 (-0.6)	108.9 (-2.7)	109.7 (-4.8)	109.1 (-2.2)	109.7 (-3.3)	107.1 (-0.3)	110.1 (0.4)
공업 제품	108.8 (0.8)	110.3 (1.4)	110.4 (1.7)	110.6 (2.0)	110.5 (1.6)	109.7 (0.0)	109.9 (-0.5)
서 비 스	105.8 (1.5)	107.4 (1.5)	106.8 (1.3)	107.4 (1.6)	107.8 (1.7)	107.8 (1.6)	108.4 (1.5)
집 세	111.2 (2.7)	113.8 (2.3)	112.9 (2.5)	113.6 (2.4)	114.1 (2.2)	114.7 (2.2)	115.5 (2.3)
공공서비스	100.8 (0.7)	101.5 (0.7)	101.6 (0.7)	101.6 (0.7)	101.5 (1.0)	101.5 (0.7)	102.1 (0.5)
개인서비스	106.5 (1.6)	108.3 (1.7)	107.4 (1.2)	108.2 (1.8)	108.9 (2.0)	108.7 (1.9)	109.3 (1.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2014			2015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108.5	108.8	109.0	109.4	109.4	109.4
상 품	110.9	111.4	111.6	110.9	110.6	110.3
농축수산물	109.0	110.2	110.1	109.8	111.4	109.2
공업 제품	110.0	110.4	110.7	110.2	109.5	110.1
서 비 스	106.6	106.7	107.0	108.2	108.4	108.7
집 세	112.6	112.9	113.2	115.2	115.4	115.7
공공서비스	101.5	101.6	101.6	102.1	102.1	102.1
개인서비스	107.2	107.3	107.6	109.0	109.2	109.7

자료: 통계청

- 생산자물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가중됨. 2015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1.9로 전분기 대비 1.9% 하락, 전년 동기대비 3.6% 하락함.
 - 농림수산물, 공산품, 전력/수도/가스의 생산자물가가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며, 특히 공산품 물가의 하락률이 6.3%로 컸음.
-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1.8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3.7% 하락함.
 - 3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로 농산물, 수산물 등이 내려 전월 대비 2.3% 하락
 - 3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97.7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올랐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1% 상승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5.7 (-1.7)	105.2 (-0.5)	105.7 (-0.5)	105.6 (-0.1)	105.5 (-0.2)	103.9 (-1.3)	101.9 (-3.6)
농림수산물	101.9 (-5.9)	102.5 (0.6)	104.2 (-1.3)	102.6 (1.7)	102.7 (-0.1)	100.7 (2.7)	103.9 (-0.3)
광 산 품	108.2 (2.4)	110.5 (2.1)	110.4 (3.4)	110.4 (2.6)	109.7 (1.3)	111.2 (1.1)	110.5 (0.1)
공 산 품	105.3 (-3.0)	103.1 (-2.1)	104.2 (-2.1)	103.8 (-1.5)	103.5 (-1.5)	101.1 (-3.2)	97.6 (-6.3)
전력/수도/가스	120.2 (5.7)	126.6 (5.3)	126.7 (6.9)	126.8 (5.7)	126.4 (5.1)	126.4 (3.6)	121.7 (-4.0)
서 비 스	104.5 (0.3)	106.1 (1.5)	105.5 (1.3)	106.0 (1.6)	106.5 (1.7)	106.5 (1.5)	107.0 (1.4)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2014			2015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105.6	105.8	105.7	101.9	101.9	101.8
농림수산물	103.6	104.4	104.7	101.9	106.2	103.7
광 산 품	110.4	110.5	110.5	110.8	110.6	110.2
공 산 품	104.1	104.3	104.1	97.6	97.4	97.7
전력/수도/가스	126.7	126.7	126.8	123.3	123.4	118.4
서 비 스	105.4	105.5	105.7	106.9	107.0	107.1

자료: 한국은행

- 수출물가 수준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하락함. 2015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3.6으로 전분기 대비 4.5%, 전년 동기대비 7.8% 하락함.
- 2015년 3월 수출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낮지만, 화학제품 가격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전월보다는 상승함. 3월 수출물가지수는 84.5로 전년 동월보다 6.8% 낮았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0.9%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8.5% 하락함.
- 3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0.3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하락함.
-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4.4로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6.8%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93.7 (-4.3)	88.1 (-6.0)	90.7 (-3.3)	87.2 (-8.7)	87.0 (-8.2)	87.5 (-3.5)	83.6 (-7.8)
농림수산물	97.6 (-12.5)	91.8 (-5.9)	92.8 (-6.4)	90.1 (-10.9)	92.8 (-3.7)	92.1 (-1.9)	90.6 (-2.3)
농 산 물	152.3 (5.0)	147.2 (-3.3)	152.7 (2.2)	151.6 (-3.7)	151.1 (-3.0)	136.5 (-6.7)	142.3 (-6.8)
수 산 물	83.2 (-19.3)	77.7 (-6.6)	77.9 (-9.7)	75.1 (-12.9)	78.1 (-2.6)	79.6 (-0.6)	77.0 (-1.1)
공 산 품	93.7 (-4.2)	88.1 (-6.0)	90.7 (-3.3)	87.2 (-8.7)	87.0 (-8.3)	87.5 (-3.5)	83.5 (-7.9)
화 학 제 품	107.4 (-3.8)	100.2 (-6.7)	103.8 (-4.8)	99.3 (-8.6)	101.3 (-6.3)	96.6 (-7.0)	85.5 (-17.6)
제1차금속제품	89.8 (-10.7)	84.6 (-5.8)	86.2 (-7.8)	83.4 (-9.2)	83.6 (-6.0)	85.3 (0.5)	81.6 (-5.3)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2014			2015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90.4	91.0	90.6	82.6	83.7	84.5
농림수산물	92.2	94.2	91.9	91.3	90.4	90.3
농 산 물	148.6	151.8	157.7	140.9	142.1	144.0
수 산 물	77.9	79.6	76.2	78.0	76.7	76.3
공 산 품	90.4	91.0	90.6	82.5	83.6	84.4
화 학 제 품	104.3	104.1	103.1	84.5	84.4	87.7
제1차금속제품	85.6	86.7	86.3	82.6	81.5	80.8

자료: 한국은행

- 수입물가는 크게 하락함. 2015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1.6으로 전분기 대비 9.2% 하락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18.1% 하락함.
- 3월 수입물가지수는 82.6으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대비 17.1%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대비 18.3%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함.
 - 자본재는 전월 대비 0.2%, 소비재는 전월 대비 0.6% 상승함.
- 3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6.8로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대비 4.8%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2.7 (-7.3)	94.9 (-7.6)	99.7 (-4.1)	96.0 (-7.5)	94.1 (-9.1)	89.9 (-9.6)	81.6 (-18.1)
농림수산물	101.0 (-5.9)	98.9 (-2.1)	98.9 (-4.1)	99.5 (-5.2)	97.1 (-3.5)	100.4 (5.1)	97.0 (-1.9)
농 산 물	100.6 (-9.5)	91.5 (-9.0)	94.4 (-11.6)	92.9 (-12.0)	87.7 (-11.0)	90.9 (-0.7)	87.4 (-7.4)
축 산 물	110.9 (0.0)	120.9 (9.0)	115.4 (5.9)	118.7 (5.1)	122.6 (9.6)	127.3 (16.1)	120.8 (4.6)
광 산 품	120.5 (-7.7)	108.3 (-10.1)	117.5 (-3.0)	113.4 (-6.1)	108.5 (-11.5)	93.6 (-20.1)	73.5 (-37.5)
공 산 품	95.3 (-7.1)	89.0 (-6.6)	92.2 (-4.7)	88.6 (-8.4)	87.8 (-8.2)	87.6 (-5.0)	83.5 (-9.5)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2014			2015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총 지 수	99.3	100.1	99.6	80.0	82.3	82.6
농림수산물	96.5	98.6	101.7	97.6	96.6	96.8
농 산 물	92.2	94.5	96.5	87.7	87.4	87.0
축 산 물	113.5	114.1	118.8	123.5	119.4	119.5
광 산 품	116.8	118.4	117.4	69.8	75.4	75.2
공 산 품	92.1	92.6	92.0	82.5	83.8	84.2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통화량 증가세가 확대됨. 2015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1.6%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4.3% 증가).
- 2015년 2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M1 포함 금융 상품과 2년미만 금전신탁, MMF 등 상대적으로 자금입출이 자유로운 상품 위주로 증가하여 전월 대비 1.0%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8.0% 증가).
 - 경제주체별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타부분이 늘어나고 기업과 기타금융기관도 늘어나는 등 부문별로 고르게 증가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0.9%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8.6% 증가), 광의유동성(L)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0.7% 증가함(원계열 전년 동월말대비 8.6% 증가).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대비)

	2014									2015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 ¹	9.1	10.0	9.3	9.2	11.9	11.8	12.1	12.6	13.4	12.5	14.3
M2 ²	5.5	6.0	6.1	6.5	7.6	7.1	7.5	8.3	8.1	8.0	8.0
L ³	6.2	6.6	6.7	6.9	7.3	7.1	7.3	8.1	8.2	8.4	8.6
본원통화 ⁴	12.7	13.5	11.2	11.6	14.9	10.7	14.4	13.9	13.6	15.0	15.9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5년 3월 금리 수준은 장단기 모두 하락함.
 - 국고채(3년)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 지연 전망에 따른 주요국 채권시장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
 - 회사채금리는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폭으로 하락
 - 3월중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중앙은행 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확대
-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

금리동향

단위: %

	2014								2015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2.84	2.75	2.56	2.54	2.40	2.24	2.14	2.14	2.04	2.02	1.87
콜 금 리 ¹	2.49	2.48	2.49	2.34	2.24	2.07	1.98	1.99	1.99	1.99	1.83
CD유통수익률(91일)	2.65	2.65	2.65	2.52	2.35	2.21	2.14	2.13	2.13	2.12	1.95
회 사 채 ²	3.26	3.17	2.97	2.93	2.79	2.60	2.47	2.46	2.36	2.30	2.13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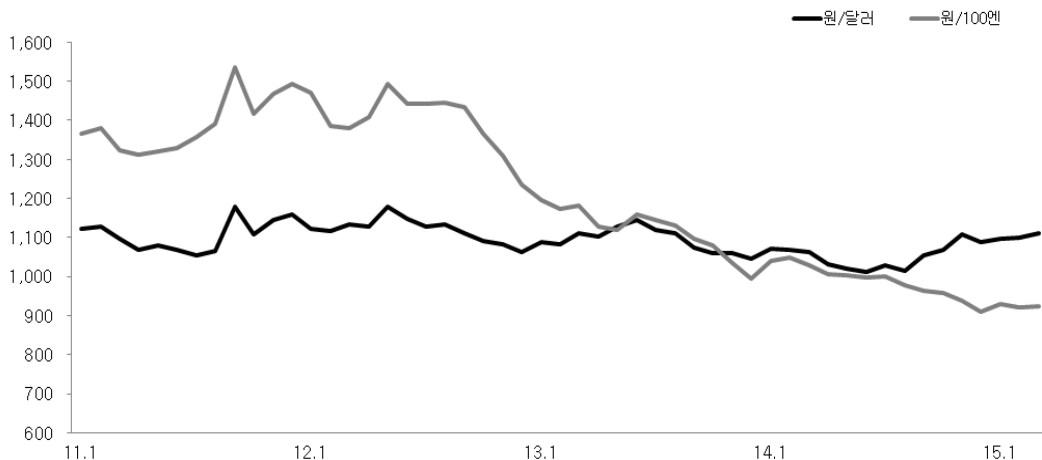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으나 원/엔 환율은 하락하여 원화는 달러화대비 약세, 엔화대비 강세를 보임.
- 2015년 3월말 환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함. 원/달러 환율은 1,110원으로 전월말 증가인 1,100원 보다 10원 상승함.
 -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기대 강화, 금통위의 기준 금리 인하 등으로 분기 최고점까지 상승하였으나, FOMC 회의 이후 달러화 강세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상승폭을 축소
- 2015년 3월말 원/100엔 환율은 전월과 비슷한 924원임.

원화 환율 동향

	2014								2015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달러	1,020	1,012	1,027	1,015	1,054	1,068	1,109	1,089	1,096	1,100	1,110
원/100엔	1,003	999	999	978	964	958	938	910	931	922	924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원화 환율 추세



Ⅱ. 농촌경제 동향²⁾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산물 물가

1.1. 생산자물가

- 식료품 생산자물가는 소폭 상승함. 2015년 1/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7로 전년 동기대비 0.4%, 전분기에 비해 1.6% 상승함.
 - 전년 동기대비 과일류 생산자물가는 31.9%나 하락한 반면, 채소류와 축산물은 각각 1.9%, 7.5% 상승함.
- 2015년 1/4분기 품목별 도매가격은 전분기와 대비하여 무와 건고추가 하락한 반면, 마늘, 양파, 사과, 배는 상승함.
 - 곡물 가격 중 쌀, 콩(백태)는 전분기보다 0.2% 하락함.
 - 채소 가격은 배추와 무, 고추(화건)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마늘(난지), 양파 등의 품목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5년 1/4분기 과일 가격은 사과(후지)는 전분기보다 6.2%, 배(신고)는 전분기보다 17.2% 상승함.
- 2015년 1/4분기 사료를 제외한 농업용품의 생산자물가는 상승함. 사료가 전년 동기대비 1.4% 하락한 반면, 비료·질소화합물이 0.3%, 살충제와 농약이 2.2%, 농기계가 13.3% 상승함.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박한울 연구원(phu87@krei.re.kr)이 작성하였음.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

	2013년	2014년		2015년	등락률(%)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05.2	108.3	107.1	108.7	0.4	1.6
식료품(이외)	105.3	105.5	103.7	101.4	-4.1	-2.3
곡류	133.2	131.5	127.4	123.2	-8.3	-4.2
-쌀	131.6	131.0	124.1	123.9	-7.1	-0.2
-콩(백태)	107.0	85.6	81.3	81.0	-4.6	-0.2
채소	81.7	98.7	86.4	100.6	1.9	14.2
-배추	51.0	38.6	40.7	40.2	1.6	-0.6
-무	54.3	46.0	54.1	51.4	5.4	-2.7
-고추(화건)	106.3	103.7	133.2	127.8	24.1	-5.4
-마늘(난지)	62.8	63.1	77.0	78.9	15.8	1.9
-양파	105.4	84.8	58.4	65.0	-19.7	6.6
과실	111.6	131.5	90.5	99.6	-31.9	9.1
-사과(후지)	119.8	146.1	93.3	99.5	-46.6	6.2
-배(신고)	109.0	131.7	88.0	105.1	-26.6	17.2
축산물	96.4	96.1	106.0	103.6	7.5	-2.4
낙농	86.3	89.9	97.4	94.7	4.8	-2.7
육가공품	130.1	130.4	130.4	130.5	0.1	0.1
과실 및 채소가공품	121.0	120.4	121.3	122.6	2.2	1.3
사료	117.2	116.0	114.4	114.6	-1.4	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107.2	111.6	111.6	111.9	0.3	0.3
살충제 및 농약	101.3	102.3	103.5	104.5	2.2	1.0
농업용 기계	115.6	116.6	121.6	129.9	13.3	8.3

주: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는 전국 도매시장의 품목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 기준으로 지수화하였음.
 자료: 통계청(부류별 생산자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품목별 도매가격)

1.2. 소비자물가

- 2015년 1/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2010년 100 기준)는 110.1로 전년 동기보다 0.4% 상승한 데 불과하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3.1% 상승한 수준임.
- 2015년 1/4분기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1% 하락함.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곡물과 과실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8%, 13.5% 하락한 반면, 채소는 4.6% 상승함.

- 축산물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 3.5% 상승함.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3년	2014년		2015년	등락률(%)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7.4	109.7	107.1	110.1	0.4	3.1
농산물	107.3	110.3	100.8	107.1	-3.1	6.3
곡물	127.6	124.5	123.1	120.7	-3.8	-2.4
채소	86.6	90.0	82.6	94.6	4.6	12.0
과실	112.9	118.1	100.4	104.6	-13.5	4.3
기타농산물	134.6	140.1	140.4	144.2	4.1	3.9
축산물	104.2	105.6	112.0	110.5	4.9	-1.4
수산물	111.9	113.8	116.6	117.3	3.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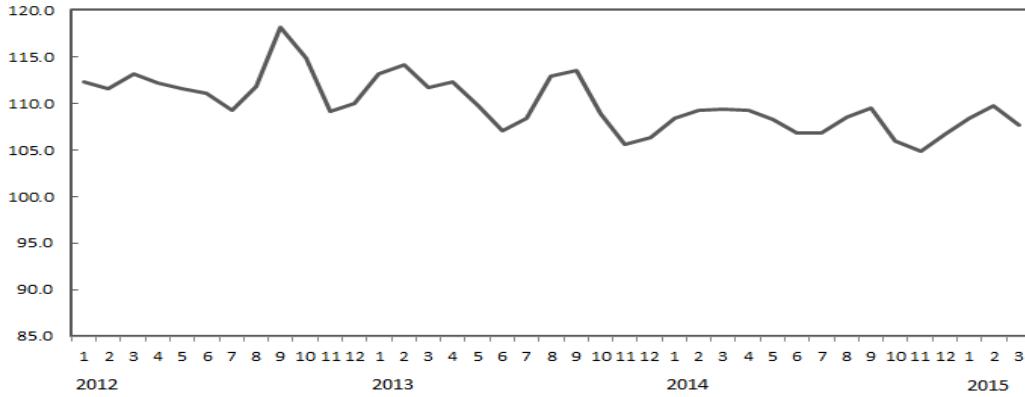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체감물가지수³⁾

- 2015년 1/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6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하락, 전분기 대비 2.6% 상승함.
 - 2013년 4/4분기 이후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그 이전 3년간보다 낮은 수준
- 2015년 1/4분기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품목은 쌀, 사과, 배추, 당근, 파, 마늘이며, 그 외 품목은 전년보다 상승함.
 - 2015년 1/4분기 물가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오른 품목은 쇠고기, 닭고기, 사과, 딸기, 무, 감자, 호박, 토마토, 파, 양파, 마늘임.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농산물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3년	2014년		2015년	등락률(%)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쌀	129.2	127.2	126.5	124.2	-2.4	-1.8
쇠고기(국산)	91.0	92.3	97.5	97.8	6.0	0.4
돼지고기	106.2	108.5	119.4	113.8	4.8	-4.7
닭고기	109.2	104.3	103.0	106.8	2.5	3.7
사과	124.8	123.0	114.6	120.1	-2.3	4.8
딸기	83.6	116.3	87.1	118.0	1.5	35.5
배추	58.5	47.9	45.9	43.6	-9.0	-5.0
무	54.7	44.2	51.1	52.6	19.0	3.0
당근	119.0	81.5	110.7	77.5	-4.9	-30.0
감자	74.2	99.8	75.4	113.2	13.4	50.1
오이	109.9	111.6	113.4	113.2	1.4	-0.2
호박	76.0	132.8	103.6	148.0	11.4	42.9
토마토	75.6	115.5	82.8	118.7	2.8	43.5
파	101.0	116.4	85.3	102.9	-11.6	20.6
양파	68.5	61.3	58.4	68.1	11.2	16.6
마늘	116.0	107.0	75.2	80.3	-24.9	6.9

주: 생활물가지수 계산에 포함되는 농산물로 구성
 자료: 통계청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5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09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적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21.7% 감소함. 지난 1/4분기의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에 비해 0.5%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한 68만 5천 명이었고, 여성은 9.2% 감소한 40만 7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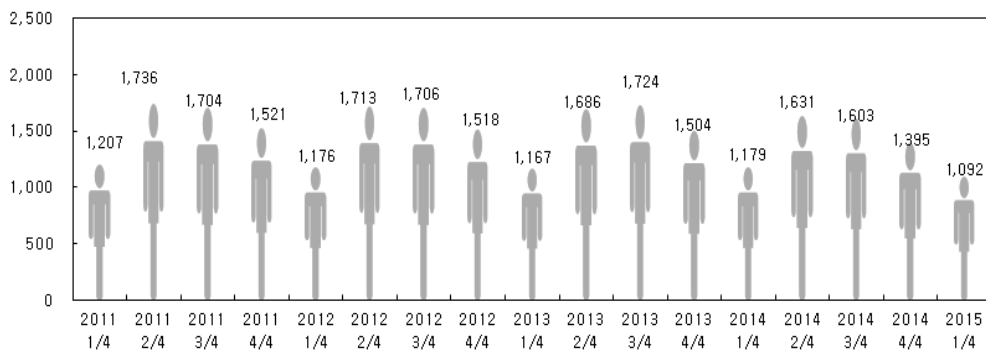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4/4	1/4	4/4	1/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계절조정)	25,346 (23,795)	24,913 (23,992)	25,767 (24,328)	25,267 (24,439)	1.4 (1.9)	-1.9 (0.5)		
	농림어업 (계절조정)	1,504 (1,507)	1,179 (1,500)	1,395 (1,398)	1,092 (1,391)	-7.4 (-7.3)	-21.7 (-0.5)		
	남성	856	730	808	685	-6.2	-15.2		
	여성	648	448	587	407	-9.2	-30.7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단위: 천명



- 2015년 1/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는 18~35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함.
 - 일시 휴직자는 1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 감소함.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9.4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적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7.9% 감소함.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4/4	1/4	4/4	1/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전체	1,504	1,179	1,395	1,092	-7.4	-21.7
1~17시간	156	257	160	251	-2.3	56.9
18~35시간	369	383	394	383	0.0	-2.8
36시간 이상	959	520	820	442	-15.0	-46.1
일시 휴직	19	18	21	16	-11.1	-23.8
주당 평균시간	37.6	30.0	35.8	29.4	-2.0	-17.9

자료: 통계청

3. 농축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5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함.
- 2015년 1~3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한 14억 4,100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토마토, 딸기, 새송이버섯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가금육류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27.7%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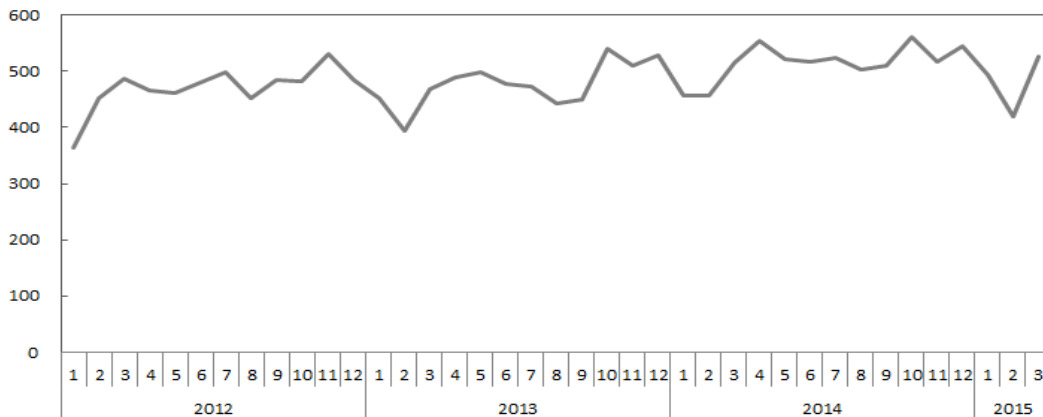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49	1,429	792	1,441	-6.7	0.8
농 산 물	644	1,210	630	1,248	-2.2	3.2
축 산 물	25	94	28	120	12.7	27.7
임 산 물	180	125	134	73	-25.6	-42.0
수 산 물	180	485	139	429	-22.9	-11.5
전 체	1,029	1,914	931	1,870	-9.6	-2.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2.3% 많고, 전월에 비해서는 20.6%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2. 수입 동향

- 2015년 1~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5억 100만 달러로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함. 축산물 수입액은 16.5%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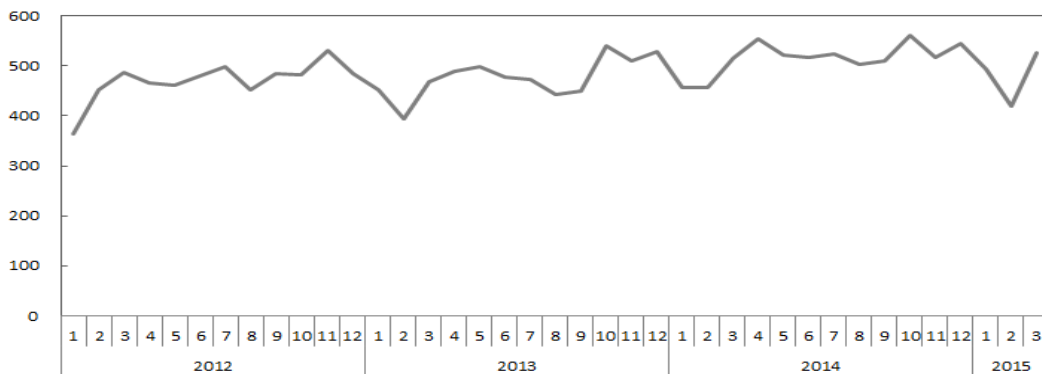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881	7,448	11,566	7,501	-2.7	0.7
농 산 물	8,182	4,606	7,920	4,486	-3.2	-2.6
축 산 물	315	1,249	357	1,456	13.4	16.5
임 산 물	3,384	1,593	3,288	1,559	-2.8	-2.1
수 산 물	1,151	1,032	1,224	1,144	6.3	10.9
전 체	13,032	8,480	12,790	8,645	-1.9	1.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4.4%, 전월에 비해서는 21.7%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5년 1/4분기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함.
- 2015년 1~3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농산물, 축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2억 3,250만 달러임.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81.9	212.4	178.0	232.5	-2.2	9.4
농 산 물	85.0	160.9	87.8	170.8	3.3	6.2
축 산 물	8.0	31.8	8.9	46.7	11.7	47.1
임 산 물	89.0	19.7	81.3	15.0	-8.6	-24.3
수 산 물	33.8	73.0	28.7	69.4	-15.2	-4.9
전 체	215.8	285.4	206.7	301.9	-4.2	5.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곡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낙농품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함.
 - 곡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7.7%, 과실류는 47.0%, 채소류는 29.2%, 화훼류는 50.0%, 낙농품은 39.9% 증가함.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 류	448.3	522.6	711.3	1,033.2	58.7	97.7
과실류	7,611.7	12,363.5	11,612.7	18,170.1	52.6	47.0
채소류	215.1	2,220.0	358.5	2,869.0	66.6	29.2
화훼류	357.4	2,184.6	578.6	3,276.0	61.9	50.0
낙농품	3,499.0	19,358.0	4,073.8	27,088.9	16.4	39.9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1~3월 중국에서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축산물 수입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 임산물 수입이 감소하여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한 9억 9,400만 달러임.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20	1,000	1,265	994	-4.2	-0.6
농 산 물	722	571	666	579	-7.8	1.4
축 산 물	7	21	9	22	40.8	1.6
임 산 물	591	408	590	393	-0.2	-3.6
수 산 물	207	285	190	301	-8.1	5.8
전 체	1,527	1,285	1,455	1,295	-4.7	0.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5년 1/4분기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액은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

- 2015년 1~3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억 8,754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3% 감소함.
- 곡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반면, 과실류는 19.4%, 채소류는 21.0%, 화훼류는 24.2%, 낙농품은 13.7% 감소함.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43,275	327,949	212,647	287,542	-12.6	-12.3
곡 류	1,911	1,475	2,436	1,615	27.5	9.5
과실류	2,194	5,889	1,836	4,746	-16.3	-19.4
채소류	16,779	42,661	10,609	33,679	-36.8	-21.0
화훼류	674	4,867	503	3,690	-25.5	-24.2
낙농품	475	2,672	497	2,306	4.7	-13.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1~3월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함.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60	109	174	122	8.6	12.7
농 산 물	15	60	30	75	98.8	26.6
축 산 물	10	12	10	11	-4.2	-10.5
임 산 물	135	37	135	36	-0.5	-2.1
수 산 물	5	20	9	28	57.3	40.6
전 체	166	129	183	150	10.2	17.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5년 1/4분기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액은 환율 상승으로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함.
- 2015년 1~3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억 4,45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함. 곡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6%, 채소류는 3.6%, 화훼류는 22.3% 감소한 반면, 과실류는 0.8%, 낙농품은 10.8% 증가함.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2,386	133,886	53,534	144,569	2.2	8.0
곡류	1,346	1,535	1,527	1,418	13.4	-7.6
과실류	2,329	5,548	2,277	5,593	-2.2	0.8
채소류	1,772	5,860	1,933	5,646	9.1	-3.6
화훼류	28	408	35	317	24.2	-22.3
낙농품	1,074	1,239	1,144	1,373	6.6	10.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514	1,884	2,006	1,727	-20.2	-8.3
농산물	2,071	1,215	1,616	1,037	-22.0	-14.7
축산물	113	453	101	471	-10.2	4.0
임산물	330	217	288	220	-12.7	1.4
수산물	17	52	18	57	0.9	9.6
전체	2,532	1,936	2,023	1,784	-20.1	-7.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1~3월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7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함.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5년 1/4분기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모두 증가함. 특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함.
- 2015년 1~3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곡류, 채소류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축산물,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52.2% 증가한 9,375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3.4%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1.0% 증가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함.

대EU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2,681	61,591	43,103	93,753	31.9	52.2
농 산 물	31,228	56,787	41,435	87,100	32.7	53.4
곡 류	79.9	169.5	89.7	240.8	12.2	42.1
과실류	1,934.5	1,854.8	887.7	1,054.2	-54.1	-43.2
채소류	391.9	1,895.2	469.4	2,188.7	19.8	15.5
화훼류	50.7	477.4	15.1	167.3	-70.3	-65.0
축 산 물	87	2,509	138	4,291	58.4	71.0
낙농품	0.1	0.0	0.1	0.1	-30.1	300.0
임 산 물	1,367	2,294	1,530	2,363	11.9	3.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1~3월 EU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9억 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함.
 -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함.
 - 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3% 증가함.
 - 임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함.

대EU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1~3월		2015. 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70	763	689	906	46.7	18.7
농 산 물	286	414	424	450	48.1	8.6
축 산 물	61	252	96	351	57.0	39.3
임 산 물	122	97	169	105	38.1	8.2
수 산 물	5	27	7	32	30.4	17.2
전 체	475	791	696	938	46.5	18.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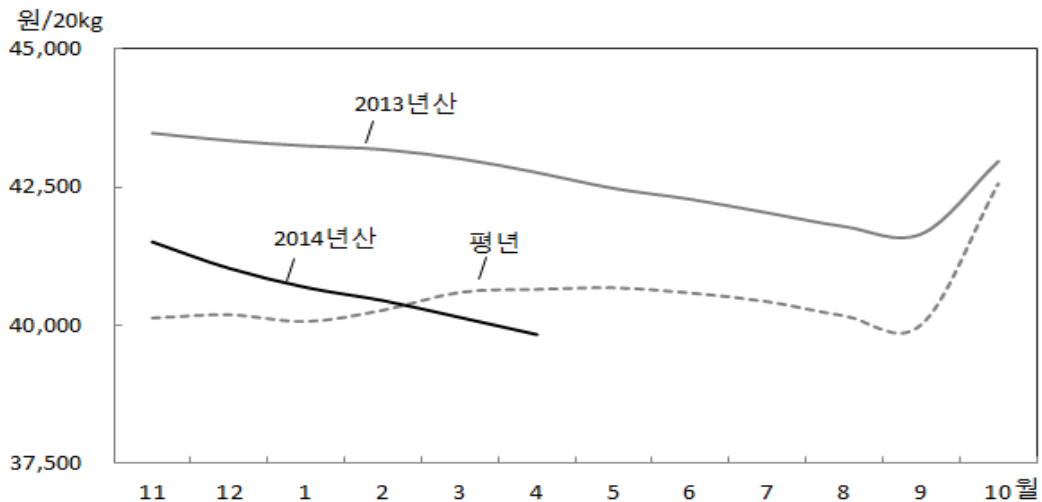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⁴⁾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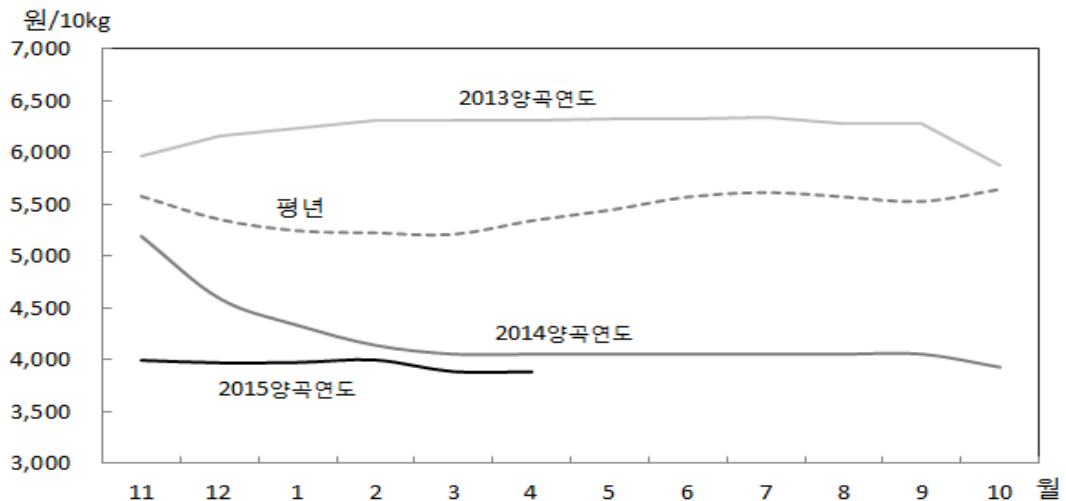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2015년 쌀 가격은 산지유통업체들의 수확기 벼 매입 증가로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지속함.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부연구위원(jkim@krei.re.kr), 송준호(jhseung@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이동주(djlee@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5년 2월 말 농가 재고량(시장출하용)은 시장격리를 비롯한 수확기 공공 비축미 출하와 RPC 판매량이 늘어나 전년대비 43.1% 감소하였고, 3월말 산지 유통업체 재고는 전년동기대비 9만 8천 톤(10.9%) 증가함.
- 3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kg 기준 4만 145원으로 전년대비 6.7%, 수확기대비 4.0% 하락함.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한 산지 쌀 가격은 4월 평균 20kg당 3만 9,836원으로 전년과 수확기 가격대비 하락폭이 각각 6.9%, 4.8%로 확대됨.
 - 2014년산 수확기 벼 가격이 하락하고 최근까지 약세를 보임에 따라 2015년 벼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80만 ha로 전년대비 1.9% 감소함.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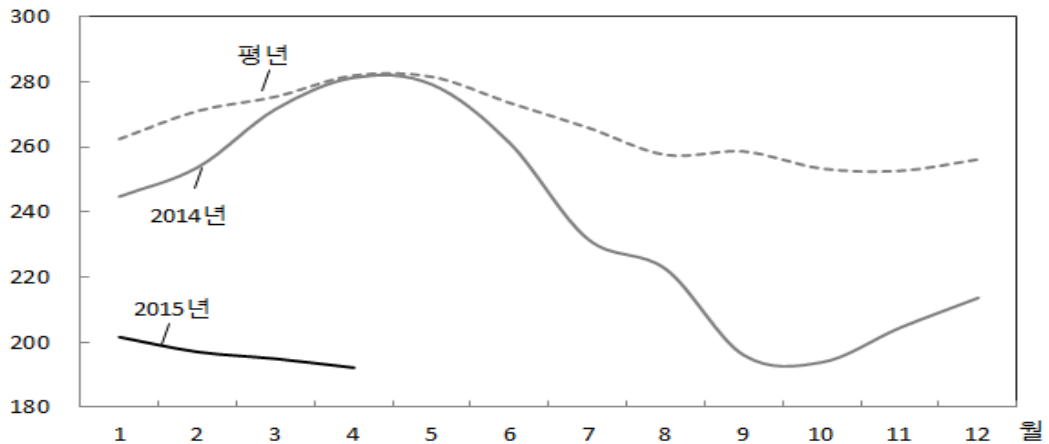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2014년산 국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년산 재고가 남아있고 작황이 평년보다 좋아 1월~3월 콩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2015년 3월 국산 콩의 평균 도매가격은 3,888원/kg으로 전년 동기대비 4.2%, 평년 동기대비 25.4% 하락함.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국산 콩의 4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2%감소한 3,886원/kg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임.
 - 4~6월에는 산지유통업체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산 콩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비축물량이 시장에 방출될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에 한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기업이 국산 콩 구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국산 콩 수급 및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3.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단위: 2000년 1월 = 100



주 1)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쌀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Rough rice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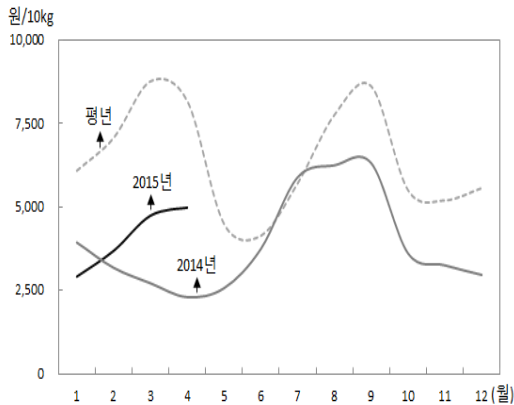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2014년 4/4분기에 러시아 곡물 수출 제한 정책에 의해 상승하던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2015년 1/4분기에 풍부한 공급량, 저유가 및 달러화 강세 지속 등으로 하락함.
 -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밀, 옥수수, 콩, 쌀의 교역량 가중평균)는 전분기 대비 3.0% 하락한 197.8임.
 - 밀은 풍부한 공급량 및 달러화 강세,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옥수수와 콩은 1월 중순 이후 국제시장의 풍부한 공급량 및 미 달러화 강세 여파로 인해 하락세를 보임.
 - 다만, 선물 투기 세력의 저가 매수세 유입, 미국 대평원 지역의 가뭄(밀), 남미 지역의 일시적인 판매 지연(옥수수, 콩) 등의 상승요인들에 의해 하락폭이 제한됨.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192.4로 전 분기 대비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남미지역 생산량 증가전망과 미국 내 조류독감 발병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거시경제요인들도 곡물가격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4분기 밀 선물가격은 대평원 지역의 가뭄이 일부 해결되었으며, 생육상황이 평년 및 전년 대비 양호한 상황임. 또한 봄밀 파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분기 대비 2.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남미지역 곡물(옥수수, 콩) 생산량 증가 전망, 미국 콩 재배면적 증가 등의 요인으로 2/4분기 옥수수와 콩 선물가격은 전분기 대비 각각 1.1%, 3.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유가의 낮은 수준 유지 및 미 달러화 강세 지속 전망으로 2/4분기 거시 경제 요인은 국제곡물 선물가격의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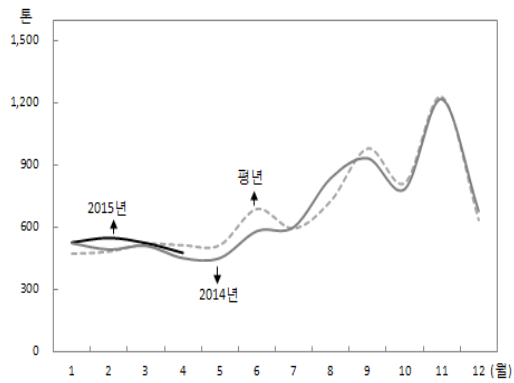
2. 엽근채소⁵⁾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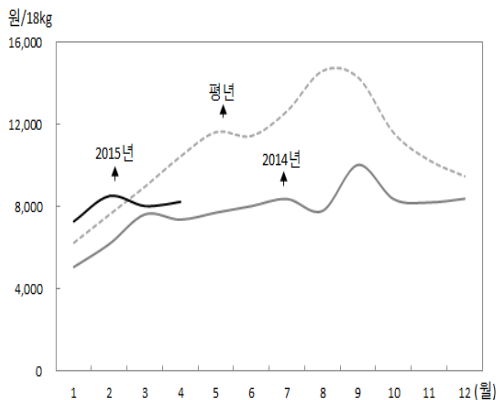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월동배추 산지출하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저장 출하량도 적어 작년 동기보다 16% 높았지만, 평년 동기보다는 48% 낮았음.
 - * 월동배추 저장량 감소 이유: 전년 월동저장배추 출하기 가격 약세와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
 - 1/4분기 월별 가격은 1월 2,920원에서 3월 4,755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 * (2015 1/4분기) 3,788원/10kg, (2014 1/4분기) 3,279원, (평년 1/4분기) 7,315원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배추 전체 출하량은 겨울배추 재고량이 적고 봄배추 생산량 감소로 15~20% 내외 감소할 전망이다.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욱 연구위원(bocho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최진용 연구원(cjin8052@krei.re.kr)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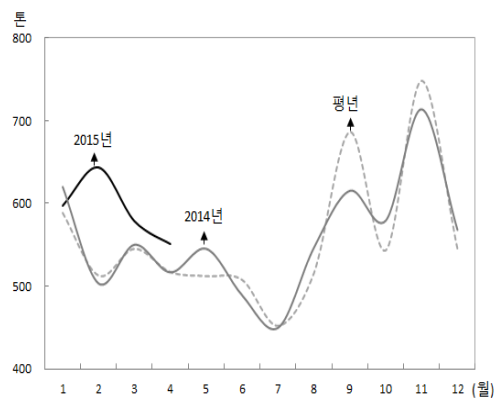
- 따라서 2/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높고 1분기 대비 상승세 지속될 전망이다.
 - * 4월 배추 가격은 평년 동월보다 낮으나, 5~6월은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높을 전망
 - * 그러나 5~6월 기상 변화에 따른 봄배추 단수 변화로 가격 수준은 유동적일 전망이다.
- 2015년 봄배추 재배면적
 - 2015년 봄배추 재배면적은 정식기 가격이 낮고 포전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23% 감소한 2천 3백 ha 가량으로 추정됨.
 - * 시설봄배추 재배면적: 394ha(작년 대비 28%, 평년 대비 49% 감소)
 - * 노지봄배추 재배면적: 1,892ha(작년 대비 10% 감소, 평년 대비 13% 감소)
 - 추정 단수를 적용한 봄배추 추정생산량은 19만 4천 톤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2%,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



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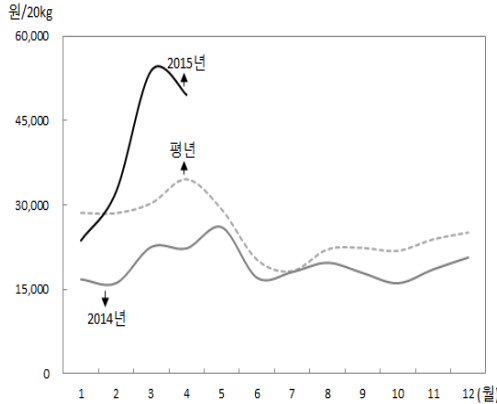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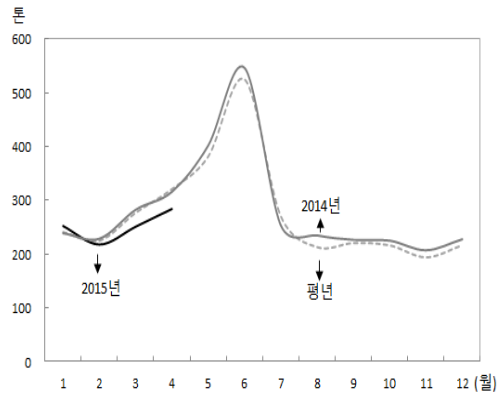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38% 높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가격이 크게 낮았던 2014년 1/4분기보다는 높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임. 월동무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높지만 후기 작황 호조로 2월 대비 3월 가격 다소 하락함.
 - * (1월) 7,393원/18kg, (2월) 8,514원, (3월) 8,027원
 - * (2015 1/4분기) 7,978원/18kg, (2014 1/4분기) 5,770원, (평년 1/4분기) 7,975원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월동무 저장 출하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10% 내외 적지만 평년보다는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됨.
 - * 월동무 재배면적은 4,189ha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 감소하였고 산지출하량 증가로 저장량 전년보다 10% 내외 감소함.
 - 2015년 2/4분기 봄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적지만 평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 * 4월 무 가격은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8,230원/18kg임. 5~6월 가격도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2015년 봄무 생산 전망
 - 금년 봄무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6%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6% 증가한 1,470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무가 작년보다 각각 11%,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시설봄무 재배면적: 104ha(작년대비 11%, 평년대비 41% 감소)
 - * 노지봄무 재배면적: 1,365ha(작년대비 5% 감소, 평년대비 13% 증가)
 - 봄무 추정 생산량(시설봄무는 추정 단수, 노지봄무는 평년 단수)은 12만 9천 톤으로 작년보다 13% 적지만 평년보다는 5% 많을 전망이다.

2.3. 감자

수미 도매가격 동향



감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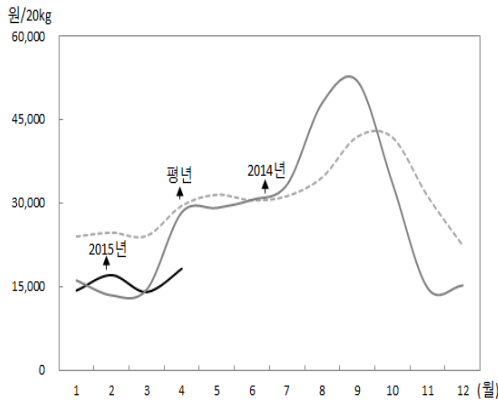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가공업체의 저장고랭지감자 수요 증가와 시설봄감자의 작황 부진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76%, 11% 높았음.
 - 1/4분기 대지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제주지역의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55%, 21% 높았음.
 - * 수미 (2015 1/4분기) 32,578원/20kg, (2014 1/4분기) 18,485원, (평년 1/4분기) 29,267원
 - * 대지 (2015 1/4분기) 49,677원/20kg, (2014 1/4분기) 32,163원, (평년 1/4분기) 40,985원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노지봄감자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1% 감소한 43만 톤으로 전망됨.
 - * 노지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하지만 평년보다는 10% 감소한 15,844ha로 추정됨.
 - * 노지봄감자 단수는 작년보다 2%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10% 증가한 2,717kg/10a로 전망됨.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작년보다 18% 증가하나 평년보다 7% 감소한 3,495ha로 전망됨.
 - * 평년단수를 고려할 경우, 금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7% 감소한 10만 7천 톤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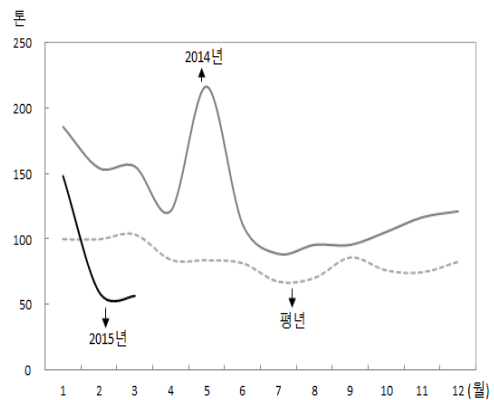
- 2/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시설봄감자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어 작년과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 4월 수미 가격은 시설봄감자 작황 부진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원/20kg임, 5~6월 가격도 작년과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2.4.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



당근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4% 높지만 평년보다는 37% 낮았음.
 - 1/4분기 도매가격은 제주산 겨울당근의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시장격리 사업으로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 (1월) 14,912원/20kg, (2월) 17,113원, (3월) 14,057원
 - * (2015 1/4분기) 15,361원/20kg, (2014 1/4분기) 14,705원, (평년 1/4분기) 24,30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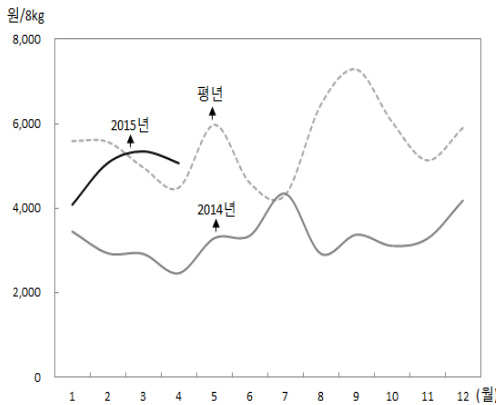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당근 저장량이 평년보다 적으나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이 작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도매가격은 상품 20kg 기준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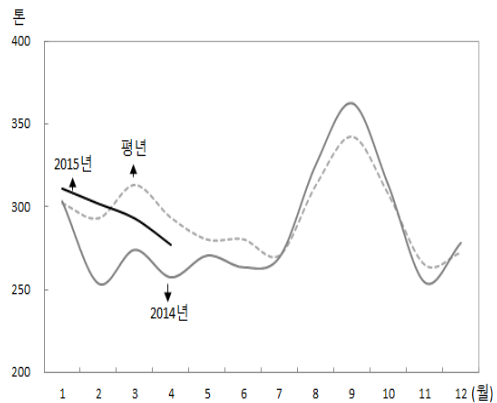
* 4월 당근 가격은 18,278원/20kg으로 작년(28,393원) 및 평년(29,583)보다 각각 36%, 38% 낮은 수준이었음. 5~6월도 작년(29,905원) 및 평년 동월(31,045원) 대비 낮을 전망임.

2.5.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56% 높지만 평년보다는 10% 낮았음.
- 1/4분기 도매가격은 제주산 겨울양배추의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시장격리 사업과 외식소비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1월) 4,103원/8kg, (2월) 5,040원, (3월) 5,345원

* (2015 1/4분기) 4,829원/20kg, (2014 1/4분기) 3,100원, (평년 1/4분기) 5,375원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양배추 저장물량과 봄양배추 재배면적의 감소로 2/4분기 가격은 작년보다 높고 평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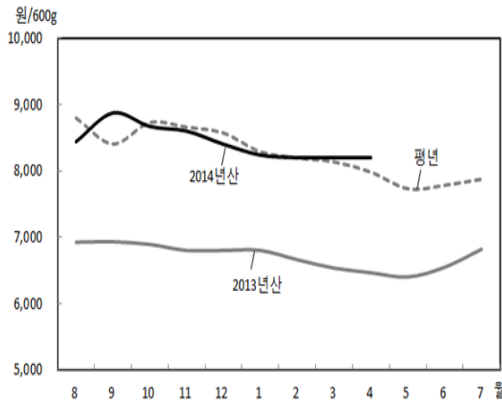
*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4월 양배추 가격은 5,066원/8kg으로 작년(2,460원) 및 평년(4,487)보다 각각 106%, 13% 높은 수준이었음. 5~6월은 작년(3,320원)보다 높고 평년 동월(5,288원)과 비슷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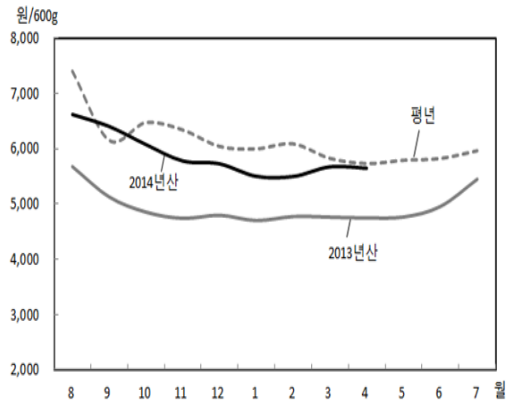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⁶⁾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09년 8월~2014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최병옥 연구위원(bocho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y@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5년 1/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1/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3% 높은 8,21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7% 높은 5,560원 수준이었음.
 - * 도매가격: (금년) 8,210원/600g, (전년) 6,660원, (평년) 8,210원
 - * 산지가격: (금년) 5,560원/600g, (전년) 4,750원, (평년) 5,970원
 - 2014년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이월 재고가 많아 공급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전년보다는 높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화건) 상품 600g당 4월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9% 높고 전월과 비슷한 5,650원임. 화건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월 대비 각각 27%, 3% 높은 8,200원임.
 - 건고추 2/4분기 도매가격은 2014년 2/4분기(6,470원/600g)보다 높고 1/4분기(8,21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산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2015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2014년산 건고추 산지가격 하락으로 2014년산보다 5%, 평년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 재배방식별로는 노지(멀칭·터널)재배가 전년보다 5% 감소하나, 비가림(하우스)재배는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015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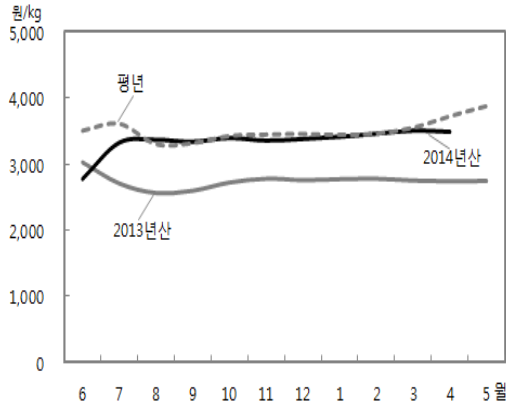
단위: %

	노지재배	비가림재배	전체
경기·강원	-1.6	2.3	-1.0
영 남	-6.3	3.4	-6.1
호 남	-4.3	1.2	-3.9
충 청	-8.5	2.6	-7.6
전 체	-5.3	2.4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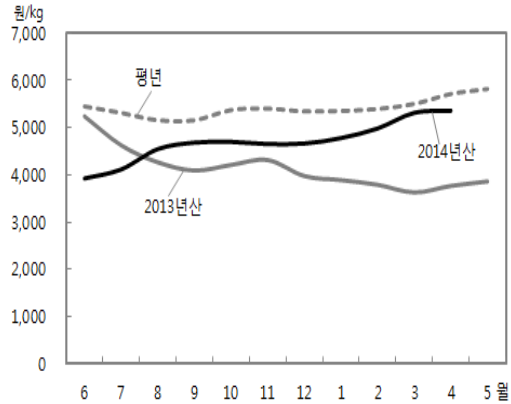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3.2. 마 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09년 6월~2014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난지형 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4년산 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25% 높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 간마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3% 높으나 2013년산 이월재고 증가 영향으로 평년보다 7% 낮음.

* 난지형 도매가격: (2014년산) 3,459원/kg, (2013년산) 2,768원/kg, (평년) 3,485원/kg

* 간마늘 도매가격: (2014년산) 5,026원/kg, (2013년산) 3,770원/kg, (평년) 5,420원/kg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4년산 마늘 재고량이 평년보다 11% 많아 5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낮을 전망.

* 4월 말 기준, 2014년산 마늘 출고량은 전년, 평년 동기보다 각각 3% 감소한 8만 9천 톤. 감모율을 적용한 재고량은 이월된 재고가 많았던 전년보다 적으나 평년보다 11% 많은 1만 5천 톤 전망

2014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

연산		입고량(톤)	출고량(톤)	감모량(톤)	재고량(톤)
2014		105,354	88,929	1,487	14,938
2013		130,269	91,741	3,840	34,688
평년		107,000	92,000	1,575	13,425
증감률 (%)	전년대비	-19.1	-3.1	-61.3	-56.9
	평년대비	-1.5	-3.3	-5.6	11.3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4년산 9.1%, 2013년산 10.0%, 평년 10.5%)을 적용하고, 정부 수매·비축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2. 평년 입고량은 냉장협회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마늘 작황이 좋아 2015년산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마늘 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15년산 마늘 생산량은 313 천 톤으로 평년(329천톤)보다 5% 감소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4. 20), 2015년산 마늘 전년 동기 대비 생육은 ‘ 좋음’ 49%, ‘비슷’ 39%, ‘나쁨’ 12%로 겨울철 기상여건이 좋아 작황 양호

* 한지형 마늘 단수는 봄철 고온의 영향을 받았던 전년보다 4% 증가 전망. 난지형 마늘의 경우 단위당 수확량이 많은 대서종 재배 비중이 증가하고 결주가 적어 단수는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2015년산 마늘 전년대비 생육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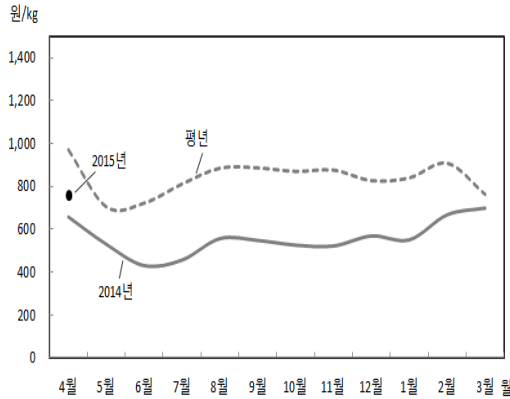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형	3.1	-	4.0	-	3.5
난지형	1.6	8.0	5.1	16.9	8.0
전체	2.2	8.0	5.0	16.9	7.5

자료: 농업관측센터,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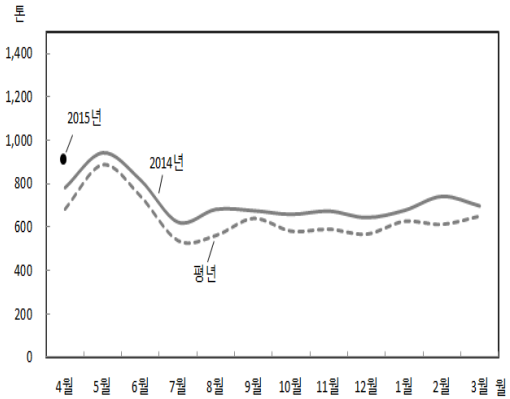
- 6월부터 출하되는 2015년산 마늘 가격이 다소 상승하나 2014년산 재고량이 많아 2015년 2/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0년 4월~2015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파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5%, 29% 낮은 639원이며, 2014년 4/4분기보다 19% 상승하였음.
 - * 2014년산 저장양파가 많아 가격은 전년과 평년동기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저장양파에 대한 시장격리 추진으로 2014년 4/4분기보다는 상승하였음.
 - * (1월) 551원/kg, (2월) 668원, (3월) 699원
 - * (2015 1/4분기) 639원/kg, (2014 1/4분기) 673원, (평년 1/4분기) 894원
- 2015년 양파 생산 동향
 -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 2015년산 조생종 양파 10a당 수확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2%, 1% 감소한 6,012kg이 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2015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1%, 12% 적은 12만 1천 톤으로 전망됨.
 - 제주, 전남 고흥지역의 조생종 양파 단수는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하였음. 이는 3월 한파 및 서리피해, 4월 큰 일교차 등으로 추대 및 노균병 발생이 늘어났기 때문임.

- 전남 무안지역의 조생종 양파 단수 감소폭은 제주, 고흥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4월 상·중순에 일교차가 크게 발생하여 구 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제주, 고흥에 비해 병해충 발생이 적기 때문임.

2015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5		2,013	6,012	121.0
2014		1,999	6,821	136.4
평년		2,278	6,027	137.3
증감률 (%)	전년	0.7	-11.9	-11.2
	평년	-11.6	-0.2	-11.9

주: 2015년산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5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한 수준임. 4월 잦은 비에 일조 시간도 부족하여 물 빠짐이 나쁜 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노균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밭 재배지역의 작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논 재배비중이 높은 영남지역은 정식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고, 12월 초 한파피해로 뿌리활착이 지연되면서 결주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4월에는 노균병 발생이 늘어나 전남에 비해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밭 재배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은 병해충 발생이 적고 전반적인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2015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전년(145만 4천 톤)보다 17%, 평년(127만 6천 톤)보다 6% 감소한 120만 6천 톤으로 전망됨.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0% 높으나, 평년보다 19% 낮은 790원임.
 - *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4월 잦은 비로 조생종 양파의 수확작업이 원활치 못하여 상품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였음.

- 2/4분기 양파 공급량은 저장양파 출고량이 많으나,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과 평년 보다 각각 16%, 6% 감소한 139만 2천 톤으로 추정됨.
- 2/4분기 도매가격은 평년(800원/kg)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2/4분기 양파 공급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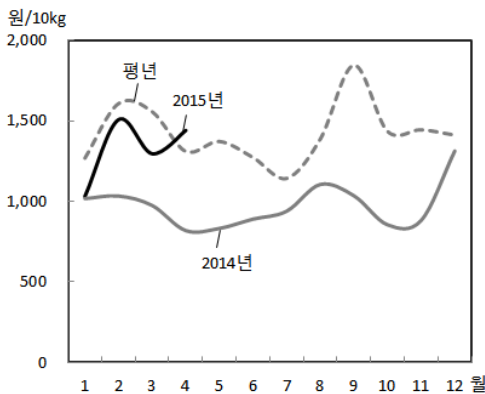
단위: 천 톤

		저장양파 출고량	생산량	수입량	합계
2015년		59	1,327	6.4	1,392
2014년		51	1,590	6.3	1,647
평년		42	1,414	18.1	1,474
증감률 (%)	전년	15.7	-16.5	2.3	-15.5
	평년	40.5	-6.1	-64.7	-5.5

주: 2014년 저장양파 출고량은 정부 수급안정 대책에 의한 자율감축 물량을, 2015년산 생산량은 조생종 양파의 생산조정(산지폐기)물량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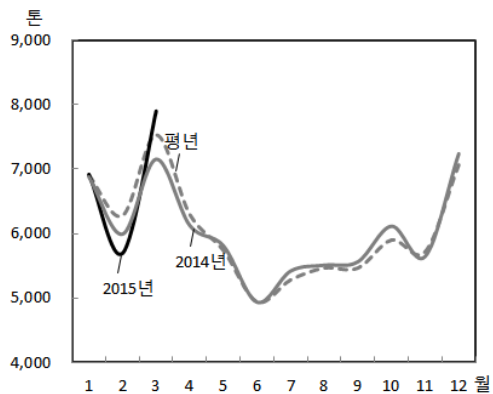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자료는 2010년 1월~201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대파 반입량 동향



- 2015년 1/4분기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278원(중품 1,041원)으로 전년 대비 27% 높고 평년 대비 14% 낮음.
 - * (금년) 1,278원/kg, (전년) 1,009원, (평년) 1,478원
 - * (1월) 1,031원/kg, (2월) 1,508원, (3월) 1,296원
 - 금년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2월 상순 폭설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은 감소함.
 - 출하가 후반부로 집중되었던 전년에 비해 금년은 단위당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대기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출하시기가 분산되면서 대파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함.
 - 국내산 대파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1~3월 대파 총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고 평년 대비 3% 감소한 15,984톤임.
 - * (금년) 15,984톤, (전년) 13,261톤, (평년) 16,481톤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대파 4월 가격은 1,441원/kg으로 전월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겨울대파는 출하 종료로 전반적인 출하량이 감소하는 시기이며, 5월 상순 출하가 종료될 예정임.
 - 영광지역 월동대파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고창, 부안, 완주 등 봄대파 주산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출하량 감소가 예상됨.
 - 경기지역 출하면적은 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인근 시설대파 주산지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최근 기상여건이 좋아 전반적인 대파 생육은 회복되고 있으나, 고온이 지속되면서 노지대파의 추대 발생비율이 높아 단수는 전년 대비 2% 감소할 전망이다.
 - 봄대파 출하량이 감소하여 대파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고, 평년과 비슷한 1,400~1,600원/kg 전망. 중·하품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상품과 중품간 가격 편차는 전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 중국산 대파 산지가격 하락과 국내산 대파가격 상승세로 2/4분기 대파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여름·가을·겨울대파 정식의향면적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4.17), 금년 봄(3~6)에 정식되는 여름·가을·겨울대파는 전년 대파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2014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여름·가을대파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은 감자, 당근 등 대체작목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정식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신안지역은 금년 출하기 가격이 상승하였고, 대체 작목이 마땅치 않아 정식의향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 경기·강원지역은 정식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호남지역은 5월 상순 이후 정식될 예정으로 전망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여름·가을·겨울대파 정식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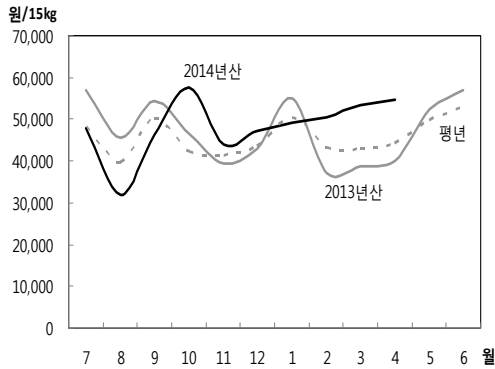
조사시기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2. 17	-14.5	-4.4	2.6	-3.3	-5.8
3. 20	-12.0	-4.1	0.7	-7.6	-4.2
4. 20	-13.7	-2.5	-0.9	-8.2	-5.4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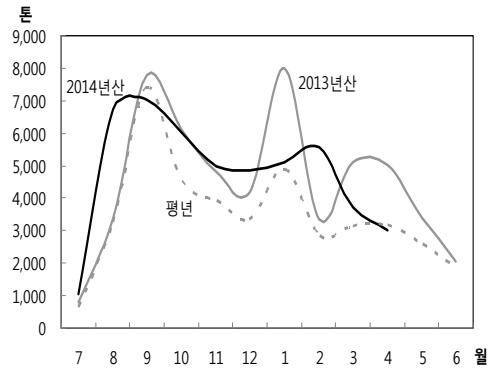
4. 과일⁷⁾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09~13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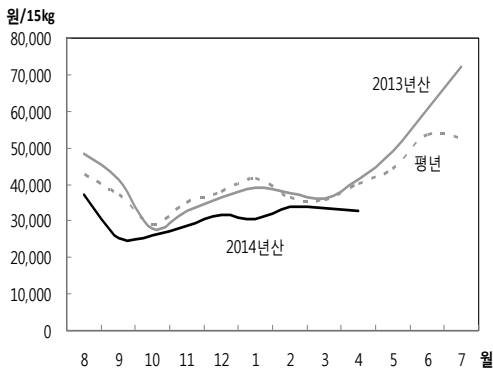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후지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7% 높았음. 이는 2014년산 사과 저장량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19% 적었기 때문임.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40% 적어 상품 15kg 상자에 5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38% 높았음.
 - 5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9%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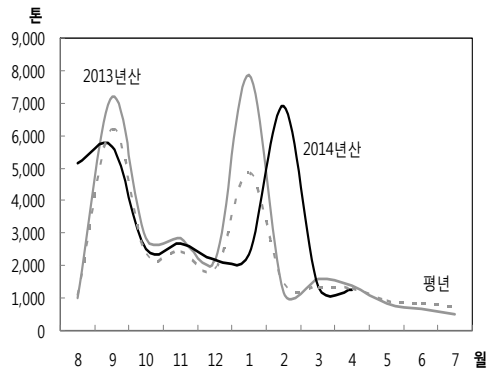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사과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3만 990ha으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신규식재와 과원갱신으로 전년보다 5% 증가하였지만, 성목면적은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경북과 충청지역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늘고, 강원과 호남 지역은 각각 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품종별로는 일반후지(동북 7호)와 후지조숙계(료카, 히로사키)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3% 줄어들었지만, 착색계후지(미시마, 미야마, 기쿠8, 로얄후지)가 8% 늘어나 전체 후지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홍로와 감홍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 증가한 반면, 쓰가루와 양광은 전년보다 각각 3% 감소한 것으로 예상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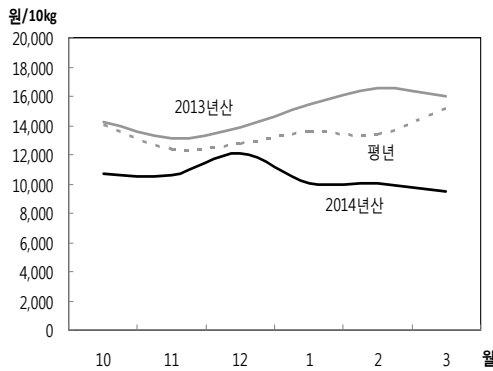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09~13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항, 9월 이후는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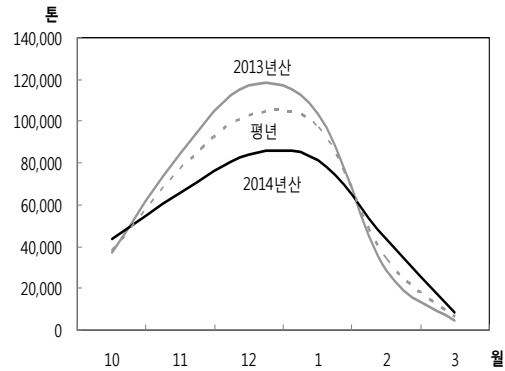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3% 낮았음.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21% 낮아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음.
 - 5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저장량 증가로 전년보다 12%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00년 이후 계속된 재배면적 감소세가 2015년에도 이어져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2,870ha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2%, 유목면적은 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충청지역이 전년보다 각각 2% 감소하고, 호남지역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영남지역은 타 작목 전환과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전년에 이어 재배면적이 4% 줄어 면적 감소폭이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2%, 4% 감소한 것으로 전망됨.

4.3. 감귤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 동향



노지온주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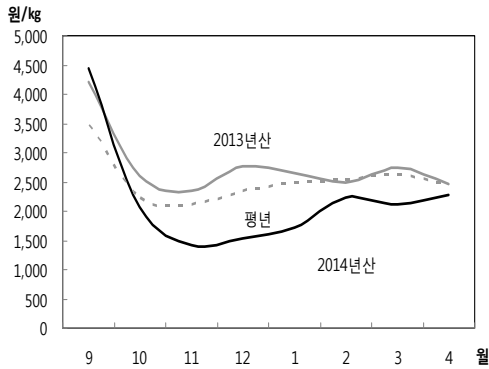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9~13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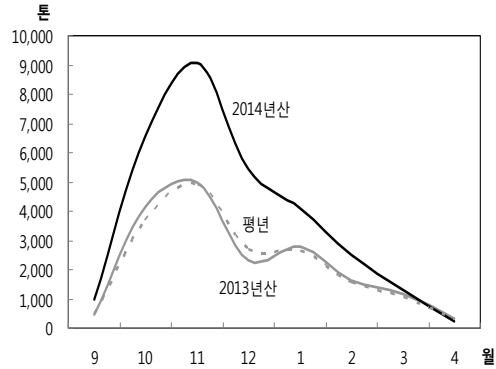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10kg 상자에 1만원으로 전년보다 38% 낮았음. 출하량은 전년보다 3% 감소하였으나,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월동온주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한데다, 품질도 다소 좋지 않아 5kg 상자에 1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5% 낮았음.
 - 5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2% 많고, 6월 이후에도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400ha으로 전망됨. 품종 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2% 줄어든 반면, 월동온주와 하우스온주, 만감류는 각각 15%, 2%, 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



단감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09~13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부유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kg당 2,030원으로 전년보다 23% 낮았음. 이는 2014년산 생산량 증가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42% 많았기 때문임.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2,220ha로 면적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5. 포도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만 6,250ha로 전망됨. 재배 형태별로는 노지면적이 전년보다 1% 감소, 시설면적은 노지재배에서 전환하는 면적 증가와 신규과원 조성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시설재배 중에서 가온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하고, 무가온면적은 5%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2/4분기 전망
 - 5월 시설포도 출하면적은 가온재배 감소로 전년보다 6% 줄 것으로 전망됨.
 - 6월 이후에는 무가온재배 확대로 출하면적이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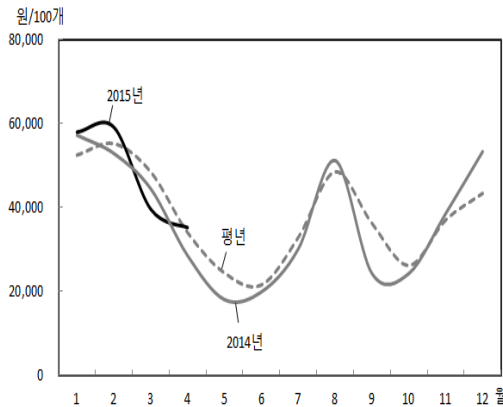
4.6. 복숭아

- 2015년 재배면적 전망
 - 2015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한 1만 6,185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신규식재와 과원 갱신으로 전년보다 6% 늘고,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화로 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품종별로는 천도계 복숭아가 전년보다 2%, 유모계는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조중생종 면적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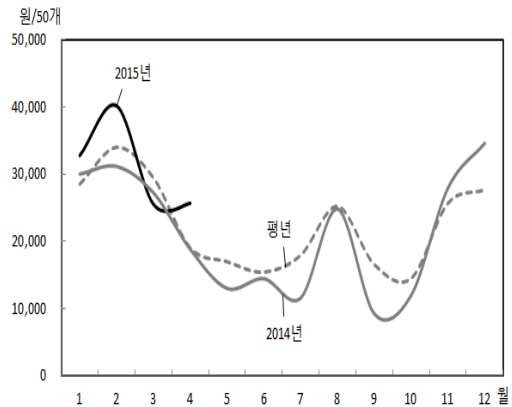
5. 과채⁸⁾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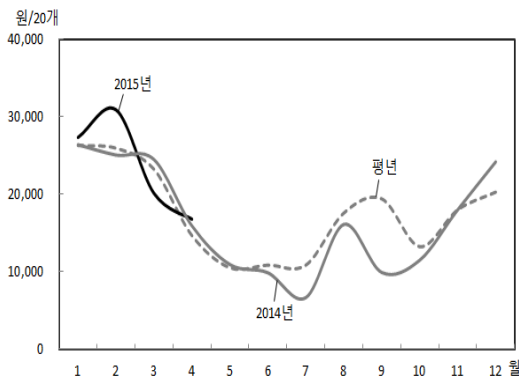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월 5만 8천원, 2월 5만 9,200원, 3월 3만 9,6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5만 2,300원으로 작년 대비 1% 높았고, 평년과 비슷하였음.
 - 1/4분기는 주산지인 영남충청지역에서의 신규농업인 유입 및 기존농가의 재배 규모 확대로 인해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부진 및 역병 발생으로 반입량은 작년대비 2% 적었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월 3만 2,800원, 2월 4만 200원, 3월 2만 5,5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3만 2,8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1%, 7% 높았음.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기환 연구위원(kihwan@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부연(sese85@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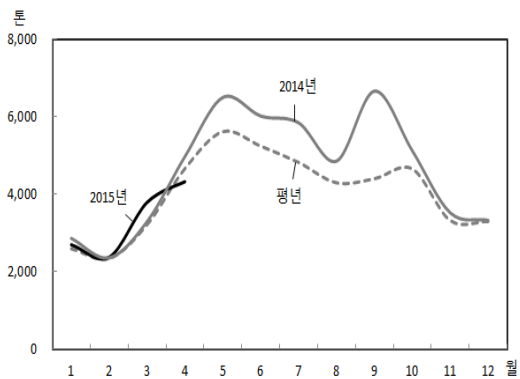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충청·영남지역의 작황 부진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24% 높은 상품 100개에 3만 5,300원이었음. 5월 출하량은 주산지의 잦은 강우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작년보다 감소하여 가격은 높을 것으로 전망됨. 6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4월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로 작년보다 36% 높은 상품 50개에 2만 5,700원이었음. 5~6월 출하량은 주산지인 호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적어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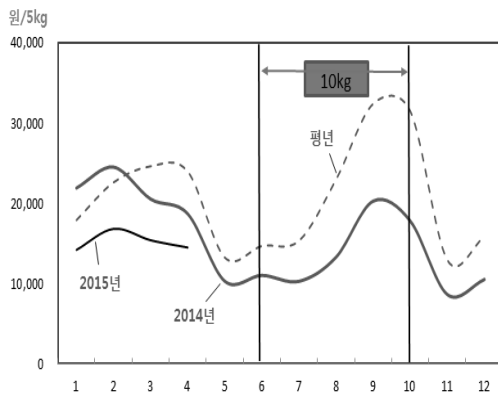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월 2만 7,400원, 2월 3만 900원, 3월 2만 1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만 6,100원으로 작년과 평년대비 3%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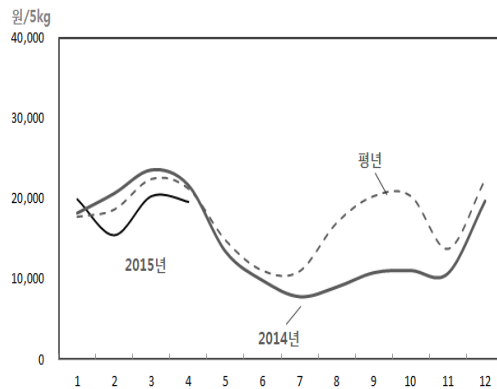
-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육 저조로 축성작형 출하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2월 기상여건이 회복되고 신규시설면적이 증가하여 2월과 3월 반입량은 작년 보다 각각 1%, 4% 증가하였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기상 악화로 생육이 저조하여 작년 보다 5% 높은 상품 20개에 1만 6,800원이었음. 5~6월에는 충청지역 및 여름작형이 집중되는 강원지역 일부에서 애호박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출하량이 점차 증가 하겠으며, 이에 따라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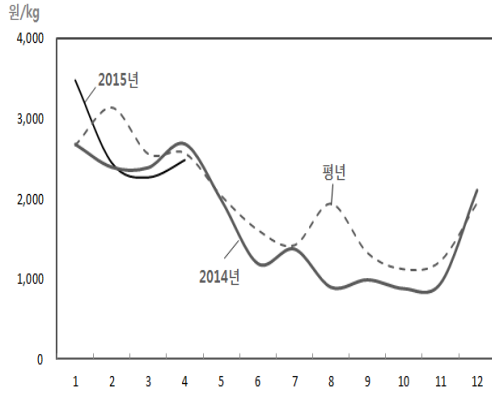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에 1만 4,200원, 2월 1만 6,800원, 3월 1만 5,400원 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5,500원 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31%, 29%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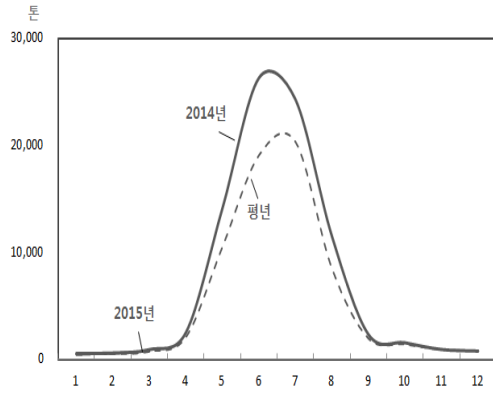
- 일반토마토 1~3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5% 많았음. 이는 영남지역의 출하 비중이 높은 시기로 타 작목에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월 1만 9,900원, 2월 1만 5,500원, 3월 2만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8,6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 5% 낮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1월 1만 4,200원, 2월 1만 4,100원, 3월 1만 5,2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4,500원으로 작년보다 26% 낮았음.
 - 방울토마토 1/4분기 전체 반입량은 작년보다 1% 많았음. 충남 부여, 예산 등지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소비대체품목의 출하 증가와 생육 부진으로 품질도 다소 좋지 않아 작년보다 22%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4,500원이었음.
 - 5~6월 출하량은 정식면적이 증가한 영남, 충청지역에서 출하가 이어지고, 조기정식 된 강원 춘천지역에서도 출하가 시작되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4월 원형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9,700원으로 작년보다 9% 낮았음. 대추형도 3kg 상자에 1만 4,600원으로 작년보다 22% 낮았음. 이는 대추형 방울토마토 면적 증가로 전체 방울토마토 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5~6월 품종별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충청·호남지역에서 원형 재배농가가 대추형으로 전환이 많아 원형은 작년보다 감소, 대추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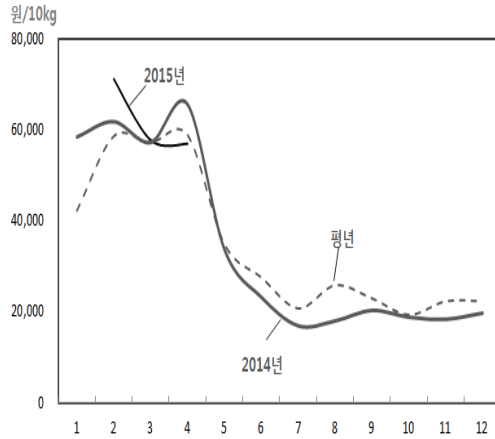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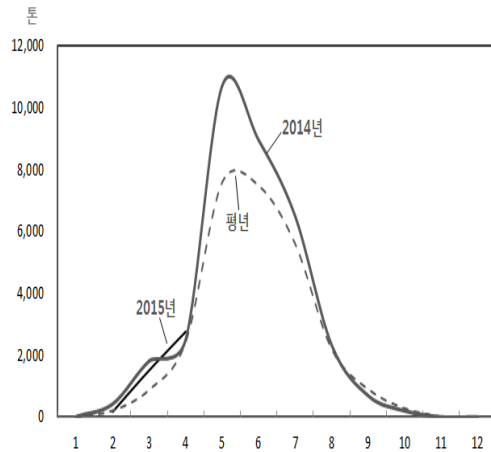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에 3,500원, 2월 2,500원, 3월 2,300원 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700원으로 작년보다는 10% 높았음.
 - 1/4분기 반입량은 작년의 낮은 수박가격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14% 적었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2,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 낮았음.
 - 5~6월 수박 출하량은 작년 낮은 수박가격으로 인해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가격은 작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5.5.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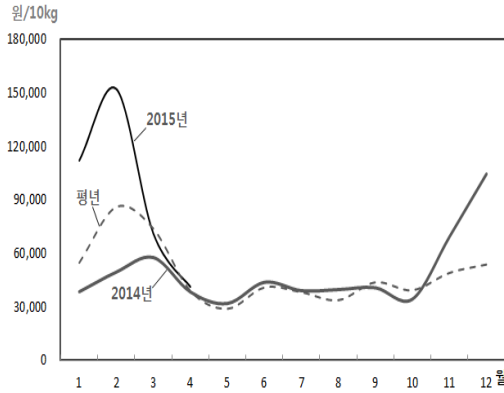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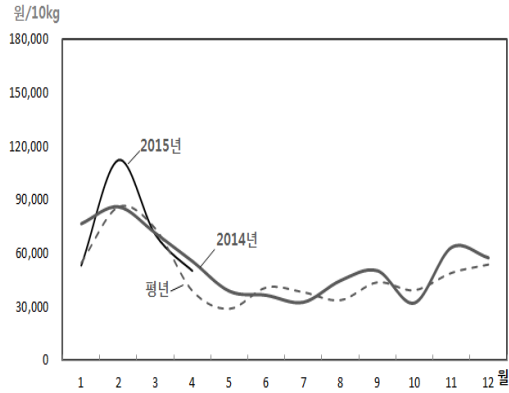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월 7만 1,200원, 3월 5만 7,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6만 4,4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9%, 22% 높았음.
 - 1/4분기 반입량은 작년보다 25% 적었음. 이는 금년 참외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품질 향상을 위해 1화방 작과수를 줄인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상자에 5만 6,90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3% 낮았고, 반입량은 2,800톤으로 작년보다 11% 많았음.
 - 5월 출하량은 전체 참외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로 작과가 불량하여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겠으며, 6월 출하면적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5.6.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



녹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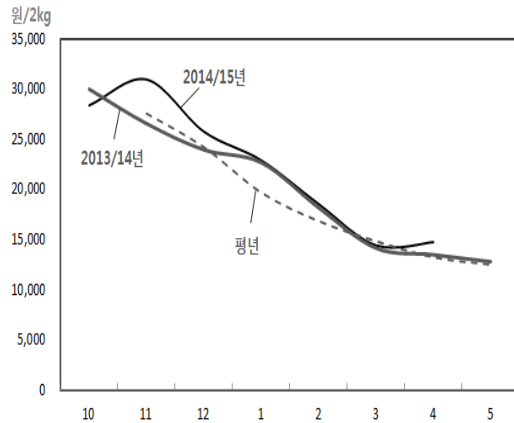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1/4분기 동향
 - 청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11만 2,100원, 2월 15만 2,200원, 3월 7만 1,1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1만 1,8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30%, 56% 높았음.
 - 1~3월 반입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한 경남 밀양과 진주에서의 출하가 이어진 데다, 작황도 부진하여 작년보다 12% 적었음.
 - 녹광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5만 3,200원, 2월 11만 2,300원, 3월 7만 5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7만 8,70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 8% 높았음.
 - 녹광풋고추 1~3월 반입량은 경남 진주, 창녕에서 룡그린, 모닝 등으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많았고, 일조시간 부족으로 생육도 부진하여 작년보다 9%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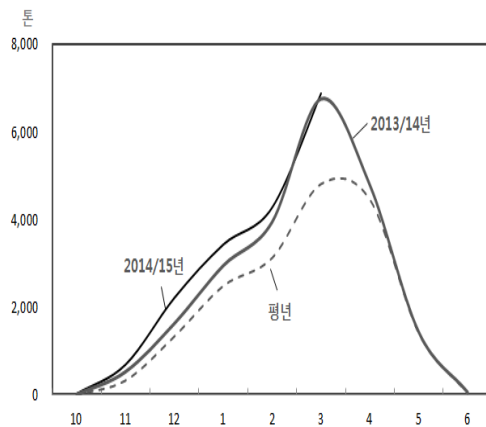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청양과 녹광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영남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작년보다 각각 8%, 10%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1,300원, 5만 200원이었음.
 - 5월 청양·녹광풋고추 출하량은 4월 기상 악화 영향으로 생육 상황 좋지 않아 작년보다 각각 3% 감소하여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5.7.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



딸기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0~2014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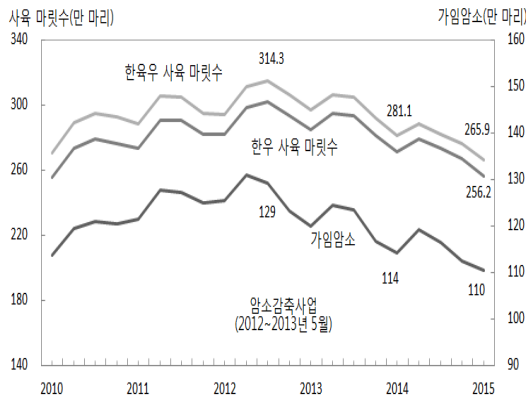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딸기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월 2만 2,900원, 2월 1만 8,500원, 3월 1만 4,4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8,600원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9% 높았음. 1~3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7% 많았음.

- 2014/15년산 딸기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생산량은 증가함에도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대형유통업체에서의 딸기 판촉행사로 소비를 촉진시켰기 때문임.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4,700원으로 작년보다 9% 높았음.
 - 딸기 재배면적 확대로 5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하여 5월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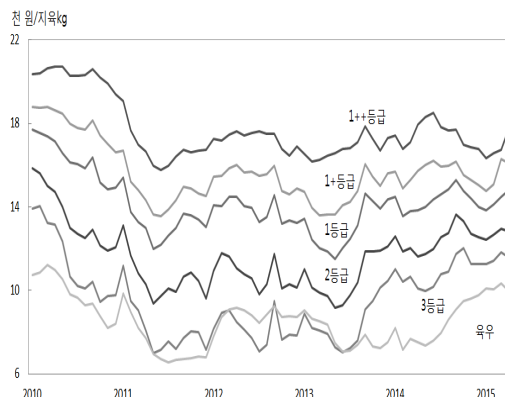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한봉희 연구원(hanbh@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정세미 연구원(wjctpal55@krei.re.kr), 이윤경 연구원(yki0817@krei.re.kr) 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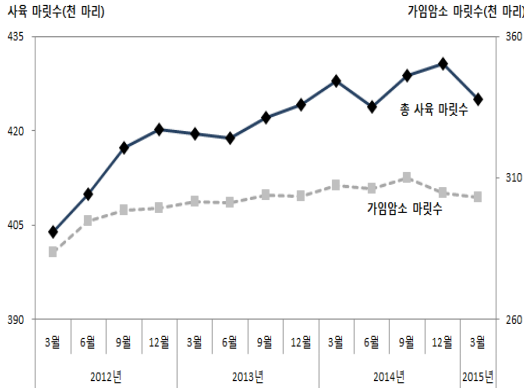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시기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줄고 도축이 늘어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작년 12월(276만 마리)보다 3.3% 감소한 266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81만 마리보다 5.4% 감소).
 -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66만 마리, 한우 256만 마리, 육우 9만 7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10만 마리(2014년 동월 114만 마리)
 - 도축이 늘고 설 소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1/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작년 4/4분기 14,379원/지육kg보다 3.6% 하락한 14,150원임(전년 동기 13,944원보다 1.5% 상승).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계획으로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월보다 2.6% 상승한 14,845원이었음(전년 동월 13,853원보다는 7.2% 하락).
 - 계절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늘어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월 266만 마리보다 2.6% 증가한 273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88만 마리보다 5.2% 감소).
 - 5~6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4분기보다 6.0% 상승한 15,000원 내외로 전망됨(전년 동기 14,190원보다 5.7% 상승).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3월(A)	6월(B)	B/A
사육 마릿수	266만 마리	273만 마리	2.6%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1~3월 14,150원	5~6월 14,500~15,500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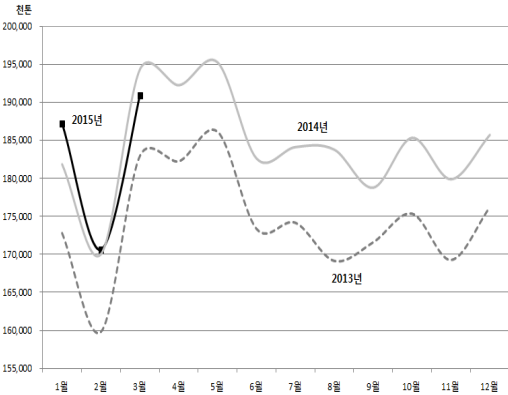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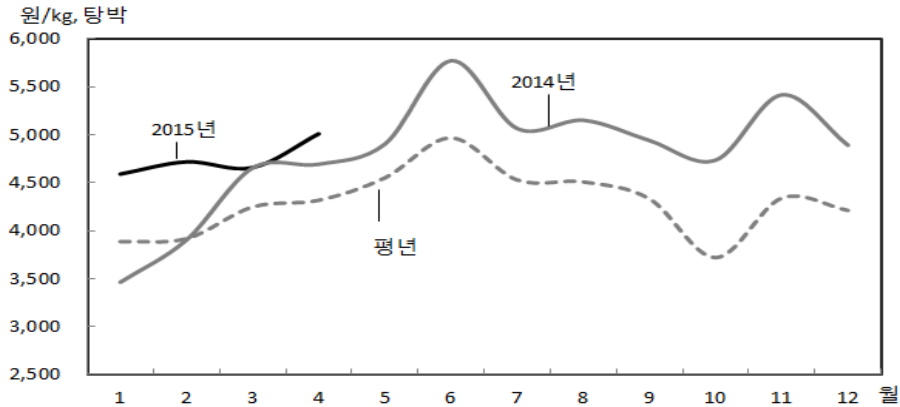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5년 1/4분기 동향
 - 일부 유업체의 도태장려금 지급으로 도축이 늘어 3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42만 5천 마리였음. 가임암소 마릿수는 1.4% 감소한 30만 3천 마리임.
 - 2015년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약 54만 9천 톤임. 반면 1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7% 감소한 32만 7천 톤이었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0.8~0.0%)한 56만 5천 ~57만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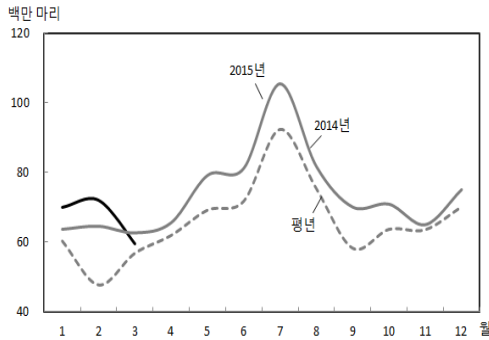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5년 1/4분기 동향
 - 2014년부터 이어진 돼지가격 호조로 후보돈 입식이 증가함. 2015년 3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3% 증가한 94만 마리였음. 모든 사육 마릿수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8% 증가한 997만 마리임(통계청).
 - FMD 발생과 이동제한 영향으로 1분기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한 395만 마리임.
 -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5년 1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6.2% 상승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655원이었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FMD와 PED 등 질병 발생으로 생산성이 하락해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1.7% 감소한 369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 감소로 2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5,122원(탕박kg)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5,044원, 5월 5,000~5,200원, 6월 5,200~5,4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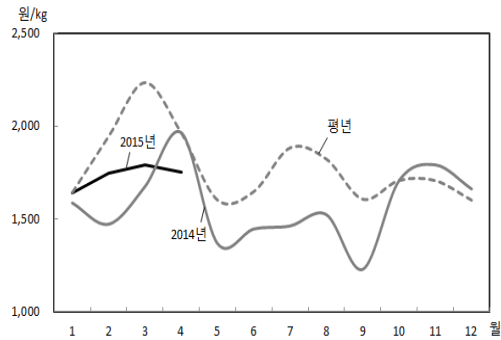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2015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5년 1분기 육용 종계 노계 도태 증가로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그러나 1분기 도계 마릿수는 계열업체의 닭고기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2억 200만 마리임.
 - 2014년 12월 미국의 AI 발생으로 가금육의 수입이 금지되어 1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2만 1,265톤임. 그러나 3월 수입량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1.8% 감소에 그쳤음.
 -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와 작년 AI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수요 감소폭 축소, 수입닭고기 대체효과 등으로 닭고기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 도계 마릿수는 증가하였지만, 닭고기 소비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2015년 1/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한 1,727원/kg임.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산 닭고기 수금지에도 불구하고 2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2분기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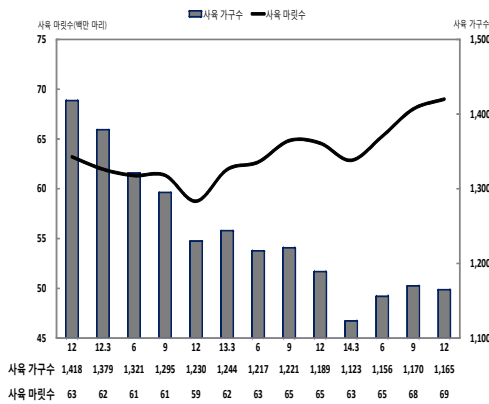
증가하고, 여름철 닭고기 생산을 위한 계열업체의 육계 사육의향 증가로 병아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2분기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계절적인 닭고기 수요와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 신제품 출시,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2분기 닭고기 수요증가가 예상되지만, 도계 마릿수와 수입량 증가에 따른 닭고기 공급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기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전월대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4월: 1,786원/kg, 5월: 1,500~1,700원/kg, 6월: 1,400~1,6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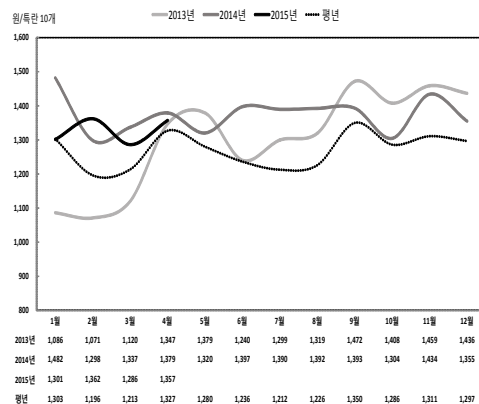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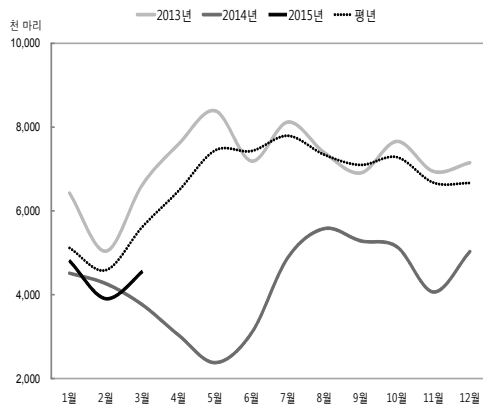
- 2015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AI 발생에 따라 280만여 마리가 매몰처분 되었으나,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6.7% 증가한 6,888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전년보다 20.2% 증가한 1,200만 마리였으며,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15.6% 증가한 834만 마리였음.
- 성계도태 증가 및 산란계군의 증가로 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5% 하락(평년 대비 10.8% 상승)한 1,316원(특란 10개)이었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산란에 가담할 신계군 증가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병아리 입식 증가에 따라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
 - 계란 공급량 증가 및 수요 증가 요인 부재로 2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250~1,35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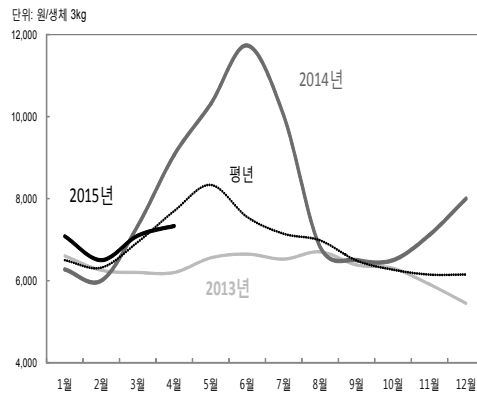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입 마릿수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 1/4분기 동향
 - HPAI 발생으로 103만여 마리가 매몰처분 되었으나,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6.8% 증가(평년보다 22.1% 감소)한 768만 마리였음.

- '14. 12~'15. 2월 육용오리 입식 증가로 1분기 평균 도압 마릿수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442만 마리였음.
- 오리 도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출하제한으로 오리 생체(3kg)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한 7,206원이었음.
- 2015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5년 2, 3월 육용오리 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6만 7천 톤이었음. 4월 이후 오리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분기는 계절적으로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 계절적인 요인 외 추가적인 변동 요인이 없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5, 6월 HPAI에 따른 매몰처분으로 오리 고기 공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2/4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7,500~8,0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고구마 수급 모니터링
- ② 매실 수급 모니터링
- ③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개선

* 근년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품목의 수급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번 호는 고구마와 매실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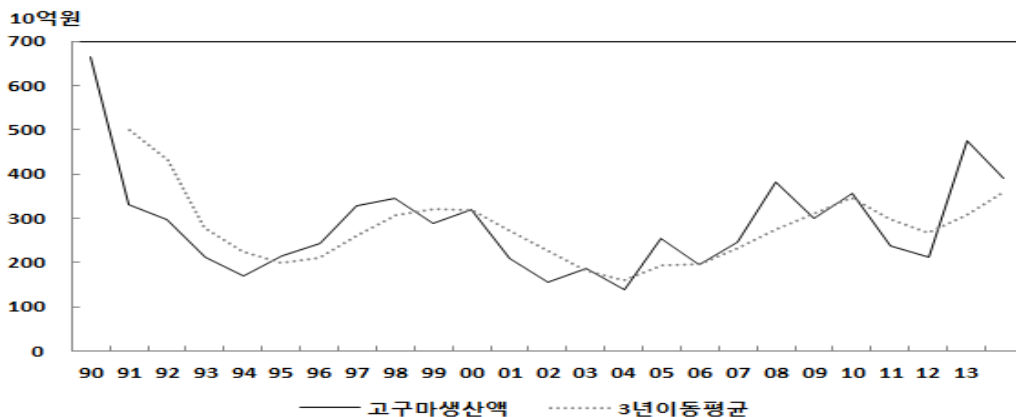
고구마 수급 모니터링

박한울*, 박미성**, 이용선***

1. 생산

- 고구마는 생산액(2010년 실질 기준)이 4,000억 원 규모의 주요 작물임. 고구마 생산액은 2000년 대 초에는 1,40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음.
- 고구마는 지난 10년 간 수급 구조의 변화를 거쳐 생산액이 3배로 성장함.

고구마 생산액 추이



주: 생산액은 생산지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phu8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 2004년 이후 고구마 생산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고구마의 가격 수준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같은 기간 고구마 재배면적은 증가했으나 단위당 생산량은 감소하여 생산량이 비슷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임.
- 고구마 재배면적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고구마는 타 식량작물에 비해 소득 수준¹⁾이 높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분 원료 등 가공용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한편, 생식용 식품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재배면적이 증가함.
 - 201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은 22,207ha(생서 기준)임.

고구마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구분	'95	'99	'00	'05	'09	'10	'11	'12	'13
재배면적	14,908	20,109	16,149	17,178	20,918	19,200	18,040	22,997	22,207
단수	2,045	2,129	2,136	1,645	1,676	1,557	1,415	1,490	1,484
생산량	305	428	345	283	351	299	255	343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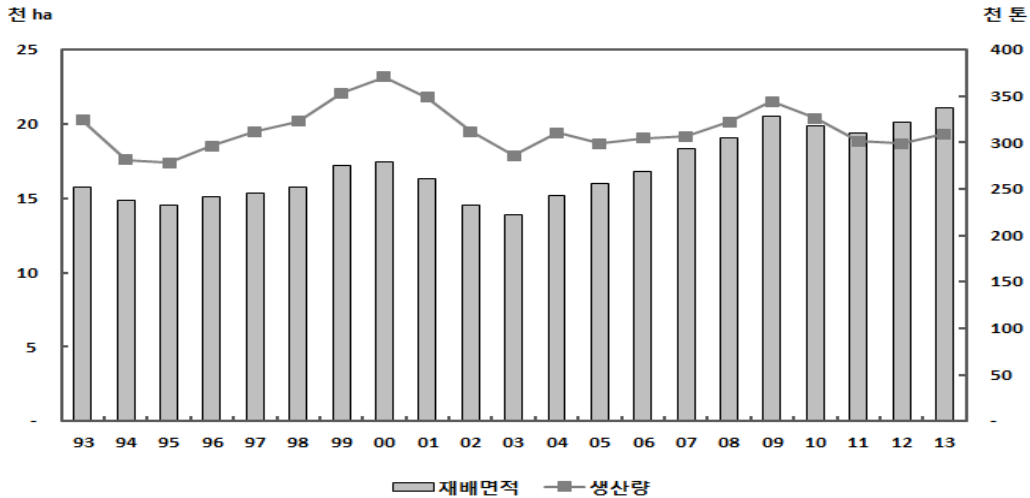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 생산통계

-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고구마 종류는 호박고구마나 자색고구마 등 과육의 색깔이 뚜렷한 품종임.
 - 고구마는 과육의 색에 따라 품종을 일반(백색)계와 유색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계는 밤고구마(올미 등)이며 유색계로는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신자미 등) 등이 있음.
- 고구마의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2000년 2,136kg에서 2013년 1,484kg으로 연평균 2.8% 감소하였음. 단수가 감소하는 것은 생식용 품종의 재배가 늘고 조기재배방식을 채택하는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임.

1)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산물 소득조사결과, 고구마 재배농가의 소득은 10a에 156만 7,100원이며 소득률은 58.2%로 식량작물 평균 소득 85만 2,300원, 소득률 52.3%보다 높음.

- 생식용(유색계) 고구마의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단수 수준은 종래의 가공용 고구마보다 낮은 경향임. 특히 호박고구마는 상대적으로 병해충에 취약하여 단수 및 저장성이 낮음.²⁾
- 소비자가 크기가 작은 고구마를 선호함에 따라 조기재배방식을 채택하는 농가가 많아졌음.
- 고구마는 재배면적이 늘어났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은 소폭 감소함.
 - 고구마 재배면적은 2000~2013년 동안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단수는 2.8% 감소하여 생산량은 연평균 0.3% 감소하였음.
 - 2013년 기준 고구마 생산량은 33만 톤임.

고구마 재배면적과 생산량(3년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농작물 생산통계

- 고구마 농가는 매우 영세하여 호당 경지면적이 0.1ha에 불과함. 농가의 97%가 0.3ha 미만의 경지를 경작함.

2) '수원 147호' 는 국내 육성 품종 1호로 수량이 많고 전분함량이 높으며 싹이 잘 트고 튼튼하여 묘 생산량이 많은 특징이 있음. 생식용 고구마의 품종은 울미(밤고구마), 신황미, 신자미(자색고구마) 등으로 식미가 우수함. 그러나 울미는 싹틀 힘이 비교적 약하며, 신황미의 경우 묘 생산량이 적은 편임(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2014)

경지규모별 고구마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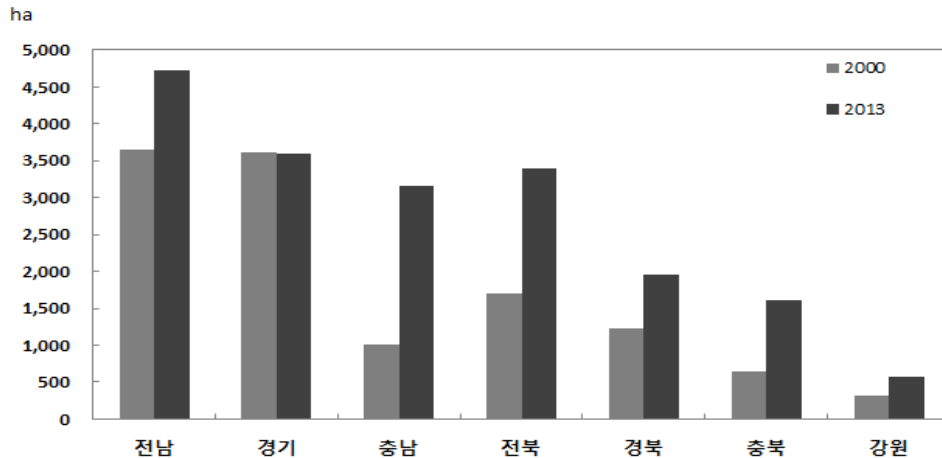
단위: 농가 수, %

구분	'00		'05		'10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고구마 농가 계	327,226	100.0	298,439	100.0	285,228	100.0
0.1ha미만	305,552	93.4	278,971	93.5	256,115	89.8
0.1~0.3	14,070	4.3	13,019	4.4	21,598	7.6
0.3~0.5	4,150	1.3	3,531	1.2	4,093	1.4
0.5~0.7	1,294	0.4	989	0.3	1,210	0.4
0.7~1.0	849	0.3	582	0.2	712	0.2
1.0~2.0	1,311	0.4	588	0.2	673	0.2
2.0ha이상	-		759	0.3	827	0.3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음. 고구마 재배면적은 2013년 기준으로 전남이 4,727ha(비중 21.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 3,594ha(16.2%), 충남 3,151ha(14.2%), 전북 3,402ha(15.3%), 경북 1,951ha(8.8%), 충북 1,615ha(7.3%) 순으로 많음.
 - 주 재배지는 여주, 해남, 익산, 영암, 논산, 이천, 김제, 무안, 당진, 서산 등이며, 이들 10개 지역의 재배면적이 전국의 38%를 차지함(2010 농업총조사).
- 고구마 재배면적은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음. 특히 충남은 2000년 대비 3배(2,134ha), 충북은 2.5배(970ha), 전북은 2배(1,701ha) 증가함.
 - 충남, 전북 지역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무균묘 신품종 보급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됨.
- 고구마 수확 시기는 대체로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로서 본격적인 출하 시기는 8월 이후임.
 - 해남지역의 수확 시기는 7월 중순경이며, 여주지역은 해남지역보다 10~20일 정도 늦게 출하됨. 김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1년 2기작 재배를 하고 있음.

고구마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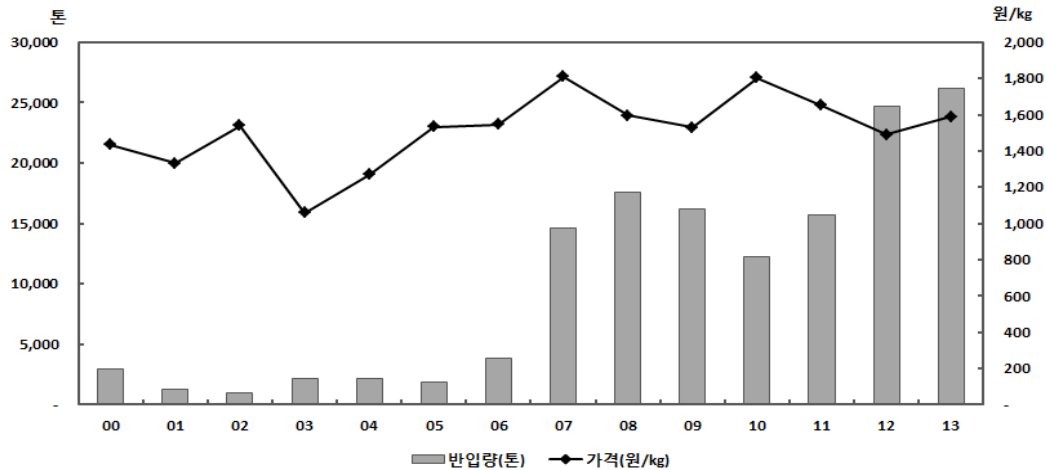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 생산통계

2. 출하 및 가격

- 과거 전분, 주정 등 가공용으로 쓰였던 고구마는 계약재배 또는 농협을 통한 수매가 주를 이루었음. 생고구마는 수집반출상과 농협을 통해 출하되었음.
 - 최근에는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거나 생산자가 직접 도매시장에 위탁 및 상장하는 비중이 큼.
- 고구마 가락시장 반입량³⁾은 2000년 2,930톤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1만 4,600톤으로 늘고, 2013년에는 2만 6,190톤으로 2000년의 8배로 증가하였음.
 - 고구마 반입량이 2007년 이후 빠르게 늘어난 것은 과거 가공용 거래가 주로 수매·계약에 의해 조달되었으나, 근년에는 가정소비용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3) 고구마 가락시장 반입량 및 단가는 연산기준임. 따라서 2000년산(2000/01년) 반입량은 2000.8~2001.7 합계이며, 2000년산 단가는 2000.8~2001.7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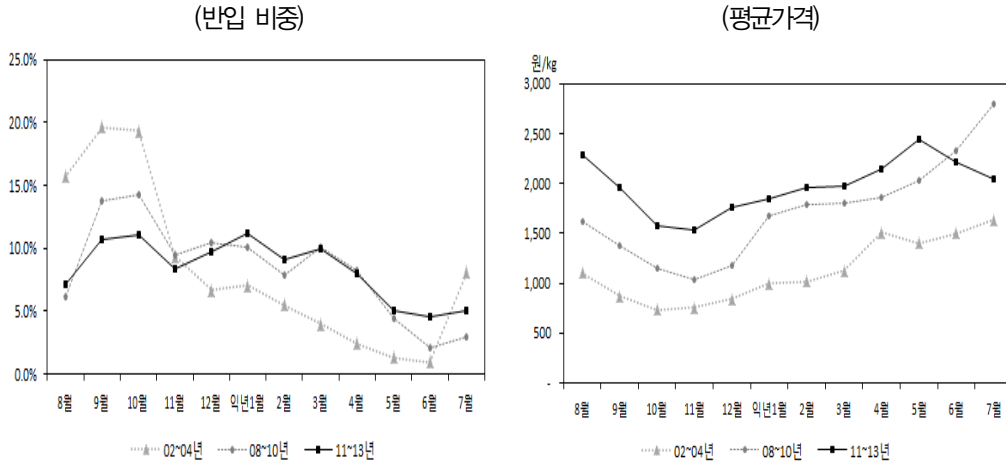
고구마 가락시장 반입량 및 평균가격



주: 연산 기준이며, 평균가격(거래금액/거래물량)은 연산(8월~익년7월)한 생산자물가지수로 디스플레이트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 2000년 이후 가락시장에서 고구마는 반입량이 증가하면서도 가격이 상승함. 고구마가 건강·다이어트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임.
 - 2011년산은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여 가격이 1,650원/kg으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산은 재배면적도 늘고 작황이 좋아 가격이 1,489원/kg으로 하락함. 한편, 2013년산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간 상승하여 1,590원/kg임.
- 고구마 출하시기가 분산되어 출하·소비가 주년화되고 있음. 과거(2002~04년산)에 반입량비중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이가 19%로 컸으나, 최근(2011~13년산)에는 7%로 감소하였음.
 - 고구마 재배·저장기술 발달 및 저장시설 확대로 수확기 출하집중 현상이 크게 완화됨.
- 고구마 가격은 10~11월에 가장 낮으며, 단경기와 초출하기(4~9월)에 높음. 그러나 고구마 출하시기가 분산됨에 따라 성출하기와 저장출하기(단경기)의 가격차는 감소하고 있음.

고구마 월별 반입 비중과 가격



주: 연산 기준이며, 평균가격(거래금액/거래물량)은 해당 월별 생산자물가지수로 디스플레이트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 특히 최근 햇상품이 수확되는 8~9월의 출하 비중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함. 최근 햇고구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고구마 품종별 반입 비중은 밤고구마가 2008년 53.3%에서 2013년 31.4%으로 감소한 반면, 호박고구마는 같은 기간에 44.5%에서 60.3%로 증가하였음.
- 기타 고구마는 전체 반입량의 7% 내외 수준이며, 이 중 물고구마는 최근에 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반입비중은 0.1% 수준에 불과함.

고구마 품종별 반입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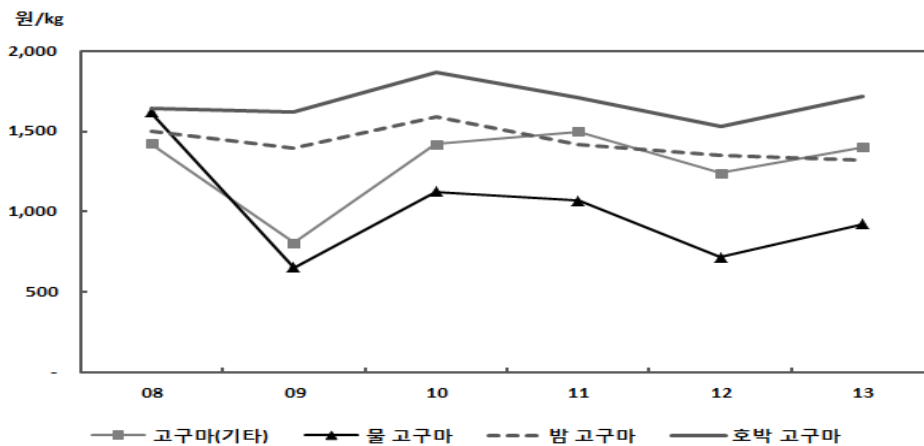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07년산	08년산	09년산	10년산	11년산	12년산	13년산
밤고구마	53.3	54.1	46.5	35.8	27.3	31.4	35.3
호박고구마	44.5	45.1	53.1	60.3	68.4	60.3	58.2
기타고구마	2.0	0.8	0.4	3.9	4.3	8.2	6.4

주: 연산(8월~익년7월) 기준이며, 2007년 이후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물고구마, 기타고구마로 분류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 고구마 품종별 가격은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기타고구마 순으로 높음. 지난 5년간 실질 가격은 호박고구마가 소폭 상승했으나 밤고구마는 소폭 하락함.
 - 호박고구마 가격(1kg)은 2008년산 1,645원에서 2013년산 1,714원으로 상승한 반면, 밤고구마 가격은 2008년산 1,498원에서 2013년산 1,322원으로 하락 하였음.

고구마 품종별 가격



주: 연산 기준이며, 평균가격(거래금액/거래물량)은 연산(8월~익년7월)한 생산자물가지수로 디스플레이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 호박고구마 수요가 증가한 반면, 밤고구마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호박고구마는 반입량이 연평균 10.8% 증가하면서도 가격도 소폭 상승하여 수요가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에 밤고구마는 반입량이 비슷하게 유지되었지만 가격은 연 2.1%씩 하락하여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⁴⁾.
 - 기타고구마는 반입량 증가율에 비해 가격 하락률이 작은 편이어서 수요는 유지되고 있음.
 - 고구마는 반입(출하)량이 연 6.8%씩 증가하면서도 가격은 연 1.3% 하락하는 데 그쳐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4) 호박고구마는 밤고구마에 비해 수분이 적당하여 섭취하기 편하고 물고구마에 비해서는 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고구마 품종별 가격 및 반입량 변화율 비교

단위: %

구분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고구마(기타)	전체
가격 등락률 (A)	0.7	-2.1	-0.3	-1.3
반입량 증감률 (B)	10.8	0.3	52.6	6.8
상대 변화율 (A/B)	0.06	-6.6	-0.01	-0.2

주: 연산 평균 기준이며, 2007~2013년산 반입량 및 실질단가를 이용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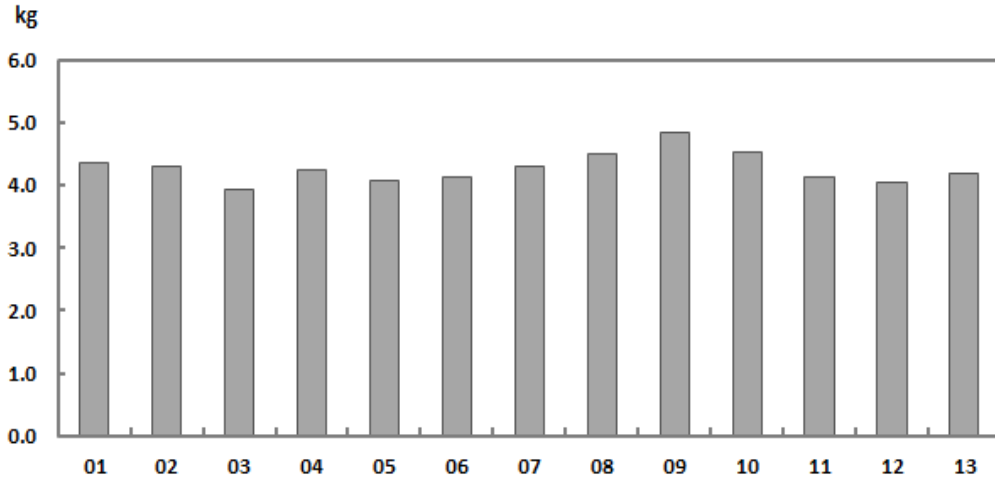
3. 소비

- 고구마 1인당 연간 소비량은 4.2kg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 고구마는 과거에 구황작물이나 전분·주정 등 가공용으로 소비되었으나, 최근 건강·다이어트식품이나 간편대용식으로 소비되고 가공·조리 방식도 다양해짐⁵⁾.
 - 고구마의 항산화작용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강하작용 등 약리적인 효능이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음⁶⁾(농촌진흥청, 2012).
 - 고구마는 주로 식사대용식으로 이용했다는 응답 가구가 전체 가구의 48.2%를 차지하고, 고구마 선택시 품질 신뢰성, 모양·크기, 가격, 신선도·숙도, 산지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5) 고구마는 샐러드에서 케이크, 피자, 스낵, 차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 용도가 다양해졌음. 고구마는 양갱, 양금, 발효음료, 당면,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품외에 음료, 국수, 분말, 막걸리 등의 새로운 가공품도 개발·시판됨.

6) 고구마는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등 고구마의 품종·색깔에 따라 베타카로틴(황색), 안토시아닌(자색) 등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각기 다르고 적합한 조리·섭취 방식이 다름.

고구마 1인당 소비량(이동평균)



주: 1인당 공급량 기준으로 3년 이동 평균한 값임.
 자료: KREI, 식품수급표, 각연도

- 과거에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용 소비는 주로 전분과 주정용으로 이용됨. 고구마의 가공용 이용실적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1995년 45%에서 2013년 10%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고구마 수매 및 용도별 가공실적

단위: 천 톤, %

구분	'95	'00	'05	'08	'09	'10	'11	'12	'13(p)	
가공용 소비량	계	136 (44.6)	107 (31.0)	51 (18.0)	24 (7.3)	30 (8.5)	29 (9.7)	29 (11.4)	22.4 (6.5)	34 (10.3)
	주정	23	10	9	2	2	1	1	0.4	1
	전분	113	97	42	22	28	28	28	22	33
수매량	23 (7.5)	10 (2.9)	9 (3.2)	2 (0.6)	2 (0.5)	1 (0.3)	0.6 (0.2)	0.4 (0.1)	1 (0.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

- 현재 주정용 이용실적은 거의 없으며, 전분도 크게 줄어든 3만 3천 톤 수준임.
- 1990년대 초까지 국내산 생산량 중 20만 톤 이상이 가공용으로 이용되었으며 거의 정부 구매사업에 의해 조달되었음. 그러나 정부 구매사업은 2000년대 이후 주정 제조 용도의 1만 톤 이하 규모에 불과함.⁷⁾
- 1995년 이후 2013년까지 생산량은 30~33만 톤을 유지했으나 가공용 소비량은 14만 톤에서 3~5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국산 고구마의 생식용 이용량은 16만 톤에서 25~30만 톤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4. 수출입

- 고구마 수입량은 2000년 61톤에서 2014년 1,782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고구마는 주로 냉동형태로 수입되며 주 수입국은 중국⁸⁾임. 그러나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수입비중이 52.6%로 크게 증가함.⁹⁾
 - 고구마는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신선형태로는 수입되지 않고 냉동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맛탕, 양금 등 가공 원료로 이용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민신문 2006.3.26).
 - 냉동고구마 수입관세가 45%이지만 냉동 고구마 수입가격이 국내산보다 낮아 수입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고구마 수입가격이 kg당 1,622원(2014년 기준 1.54달러, 환율 1,053원/달러)으로 국내산에 근접하고 있음.¹⁰⁾

7) 전분 용도의 국내산 고구마 이용은 감소한 반면 외국으로부터의 고구마전분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수입량 규모가 2010년 이후 2만 5,000톤을 상회함. 고구마전분 주 수입국은 중국이며, 중국의 수입비중은 97% 수준임.

8) 한·중FTA 타결(안)에서 고구마 전분(241.2%)은 현행관세 유지+ TRQ 5,000톤(11%)이며, 고구마 신선(385%), 냉동(45%)는 양허체 외됨.

9) 중국은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 증가로 인해 수입 단가가 상승하였음. 반면 인도네시아 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고구마 가공산업의 선진국임. 최근 국내 고구마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가공공장을 인수하거나 인도네시아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현지방문 및 해외연수가 증가하고 있음(연합뉴스 2011. 8. 7.).

10) 고구마를 원료로 한 과자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식품업체들이 고구마 가공품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도 수입 급증의 원인임.

- 고구마 수출은 미미한 편이나, 2014년에 267톤으로 전년대비 5배 증가하였음.
 - 과거 신선형태로 수출되었으나 최근 1차 가공형태의 냉동품 수출이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은 홍콩이며, 최근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함. 2014년 기준 고구마 수출비중은 홍콩 70.2%, 중국 27.8%임.

고구마 수입 현황

단위: 톤, 천불

구분			'00	'05	'10	'11	'12	'13	'14
총 계	금액		43	841	666	845	830	1,460	2,659
	물량		61	1,760	1,029	1,193	1,137	1,253	1,782
종류별	냉장한 것 (0714.20.3000)	금액	0	0	139	107	192	68	146
		물량	-	-	177	109	238	85	147
	냉동한 것 (0714.20.4000)	금액	43	841	527	738	638	1,392	2,513
		물량	61	1,760	852	1,084	899	1,168	1,63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고구마 수출 현황

단위: 톤, 천불

구분			'00	'05	'10	'11	'12	'13	'14
총 계	금액		-	42	297	242	260	174	593
	물량		-	13	108	83	81	53	267
종류별	신선한 것 (0714.20.3000)	금액	-	4	239	239	188	149	488
		물량	-	1	92	82	64	49	210
	건조한 것 (0714.20.2000)	금액	-	-	1	3	-	3	29
		물량	-	-	1	1	-	-	1
	냉동한 것 (0714.20.4000)	금액	-	36	49	-	68	12	71
		물량	-	11	9	-	17	2	54
	기타 (0714.20.9000)	금액	-	2	8	-	4	10	5
		물량	-	1	6	-	-	2	2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5. 요약과 시사점

- 고구마는 구황작물이나 전분·주정 등 가공 원료로서의 이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00년대 초 산업의 위기를 맞았음.
- 고구마는 2000년대 중반부터 건강식품으로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산업 부흥기를 맞이함. 지난 10여년 간 고구마 생산과 소비 구조는 크게 변화함.
- 고구마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종래의 가공용 고구마 대신 호박고구마 등 생과용 품종을 선택하거나 중·소과를 생산하는 조기재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감소함. 생산성을 안정시키고 높일 수 있는 품종 개발이나 재배 기술 개선이 필요함.
- 고구마 재배·저장기술 발달 및 저장시설 확충으로 출하가 연중 분산되고 시기별 가격 편차도 크게 축소됨. 따라서 향후 저장비용을 고려한 출하시기와 품종 선택 전략 수립이 요구됨.
- 고구마는 가락시장에서 반입량(2007~13년산)이 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평균 가격은 1.3% 하락하는 데 그쳐 수요는 증가함. 한편, 품종별로는 호박고구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밤고구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등 품종별 수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품종 선택에 활용해야 함.
- 소비자는 고구마를 건강에 이롭고 다이어트를 위해 편리한 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맛도 좋아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는 호박고구마와 같이 당도가 높고 수분이 적당한 품종을 선호하므로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지도 보급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함.
- 냉동고구마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고구마의 수요를 잠식하지 않도록 가공 수요에 적합한 품종이나 상품을 개발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참고문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농수산물 유통실태.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주요 식량작물 소비패턴.

농촌진흥청. 각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2014. 고구마 품종정보.

정미남 외. 2012. 「한국농업의 희망을 깨는 고구마」. 인터러빙 92호.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식품수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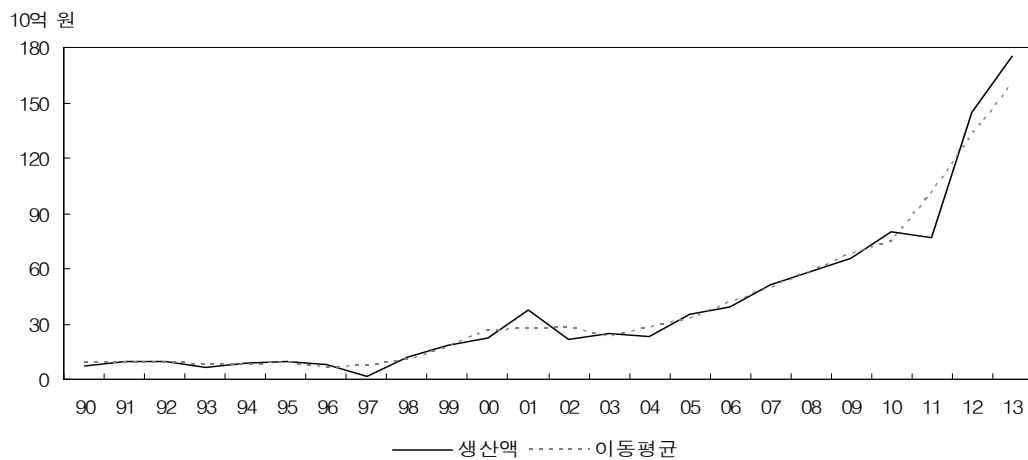
매실 수급 모니터링

박지원*, 박미성**, 이용선***

1. 생산

- 매실은 생산액이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증가하였음. 매실 생산액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0억 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1,800억 원 수준에 이룸.

매실 생산액 추이



주: 생산액은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한 실질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jione110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yslee@krei.re.kr)

- 매실 생산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매실 재배면적 급증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증가로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임.
 - 매실 재배면적은 1995년 1,371ha에서 1999년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고, 매실 성목면적은 2007년 3,277ha에서 2013년 5,537ha로 증가함.
 - 매실 생산량 역시 1995년 약 8천 톤에서 2013년 45천 톤까지 증가함. 이는 재배면적의 증가뿐 아니라 단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1990~94년 평균 601kg이었던 단수가 2013년에는 811kg까지 증가함(강진구·조경래, 2007).
 - 2000년 전후로 매실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높아진 매실 수요에 힘입어 매실 주산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매실 재배를 크게 장려함¹⁾

매실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목면적	3,277	3,122	3,520	4,453	4,618	4,705	5,537
단수	795	905	938	851	850	755	811
생산량	26,041	28,251	33,006	37,905	39,233	37,069	44,8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과실 생산량 행정조사

- 매실 주산지는 남부 지방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매실 재배면적은 전남이 2,930ha로 가장 크며, 경남 1,782ha, 전북 556ha, 경기 495ha, 경북 479ha, 충남 385ha 순으로 큼.
 - 매실 주산지라고 알려져 있는 광양시, 순천시, 하동군은 각각 전체 재배면적의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 “광양시 매실풍년,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시아뉴스통신 2014.06.17.(기사검색: 2015.04.30.)

매실 지역별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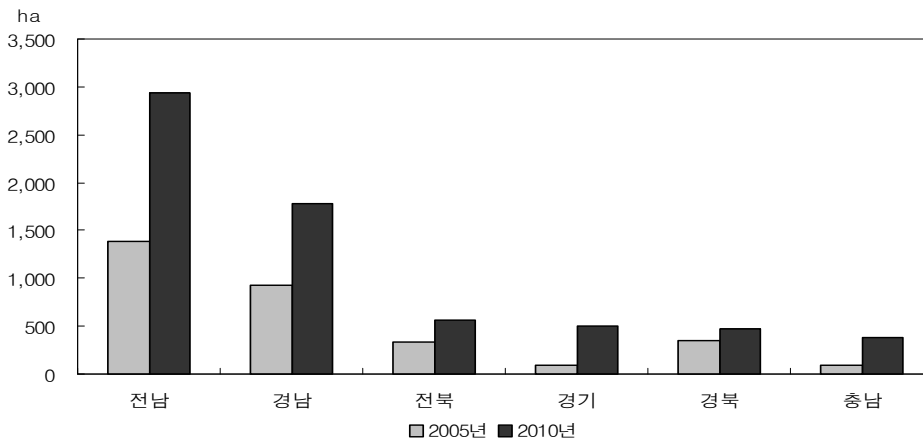
단위: ha(%)

연도	전체	전남	경남	전북	경기	경북	충남
2005	3,698 (100.0)	1,390 (37.6)	931 (25.2)	333 (9.0)	93 (2.5)	346 (9.3)	96 (2.6)
2010	7,773 (100.0)	2,930 (37.7)	1,782 (22.9)	556 (7.2)	495 (6.4)	479 (6.2)	385 (5.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05, 2010

- 매실 산지가 확대되고 있음. 기존 주산지인 남부 지방 외에 경기, 충남 등지에도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남.
 - 1995년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85%가 재배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재배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남부지역의 재배 비중이 60%대로 낮아짐(강진구·조경래, 2007).
 - 2005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매실 재배면적은 증가하였는데 비주산지였던 경기는 5.3배, 충남은 4.0배로 증가하였고, 주산지인 전남은 2.1배, 경남은 1.9배 수준으로 증가함.

매실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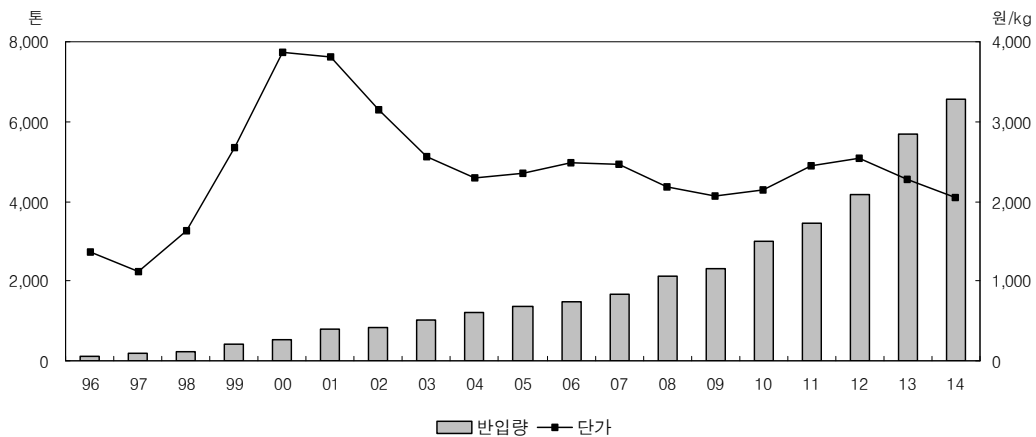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05, 2010

2. 출하 및 가격

- 매실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2000~2014년 동안 연평균 20% 증가하였고, 평균 가격은 2000년 이후 연 8%씩 하락함.
 - 2000년에 TV드라마 '허준'에 나왔던 매실을 이용한 치료와 2000년대 후반 집에서 직접 담그는 매실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따라 매실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공급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평균 가격이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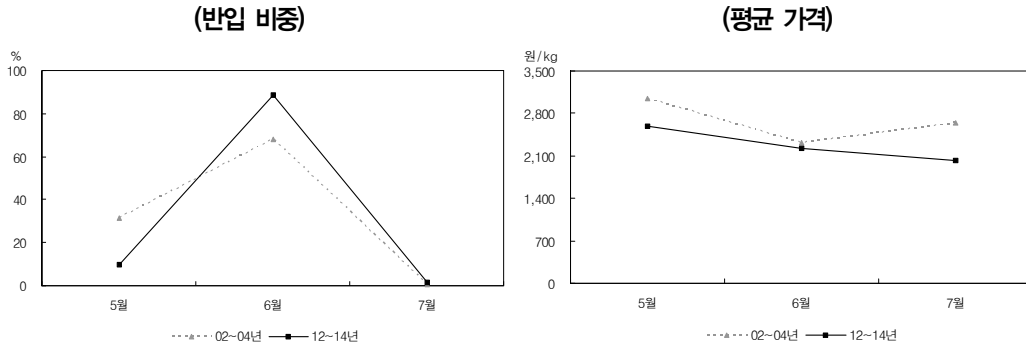
매실 반입량 및 단가(3년 이동평균)



주: 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는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 매실 출하시기는 6월로 집중되고 있음. 가락시장 월별 반입 비중은 지난 10년간 5월 비중은 감소하고 6월 비중이 증가함.
- 매실 평균가격은 5월과 7월 가격이 10년 전보다 하락한 반면, 6월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매실은 6월에 물량 비중이 늘었음에도 상대가격은 높아진 것은 6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월별 매실 반입비중 및 단가



주: 평균 가격은 총거래금액을 반입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로서 해당 월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 매실 공급(반입)량 증가에 대한 가격 하락률이 과거보다 커져서 수요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실의 가락시장 반입량 증가율 대비 가격 하락률 비율이 0.40에서 0.59로 확대됨.

매실 가격 및 반입량 변화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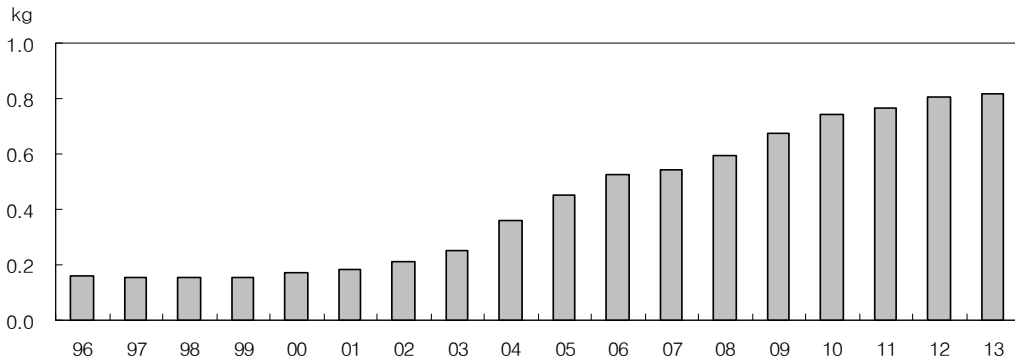
구분	가격 등락률 (연평균, A)	반입량 증감률 (연평균, B)	상대 변화율 (A/B)
2000~14년	-8.0%	20.3%	-0.40
2012~14년	-28.5%	48.2%	-0.59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OASIS

3. 소비

- 매실 수출입량은 1톤 미만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소비량은 생산량 추이와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음.
 - 1인당 매실 소비량은 2001년까지 0.2kg 미만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나 최근에는 0.8kg 수준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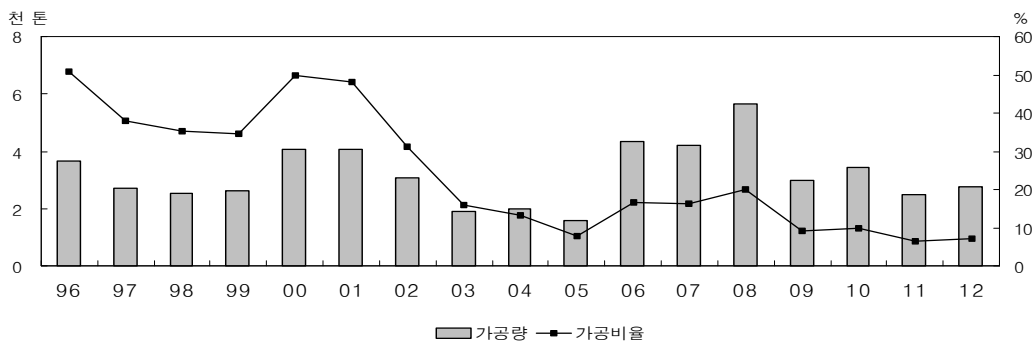
매실 1인당 소비량(3년 이동평균)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농림부(2006), 통계청

- 매실은 가공 비율이 높은 품목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평균 40% 정도가 가공에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생산량대비 가공비율이 10% 내외로 크게 감소함. 매실 수요가 가공품을 구입하기보다 생과를 구입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
 - 매실은 생과 자체를 섭취하기 보다는 2차적으로 가공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 매실 장아찌나 효소 등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²⁾ 이미 가공된 공산품보다는 생과를 더 구입하고 있음.

매실 가공 현황(3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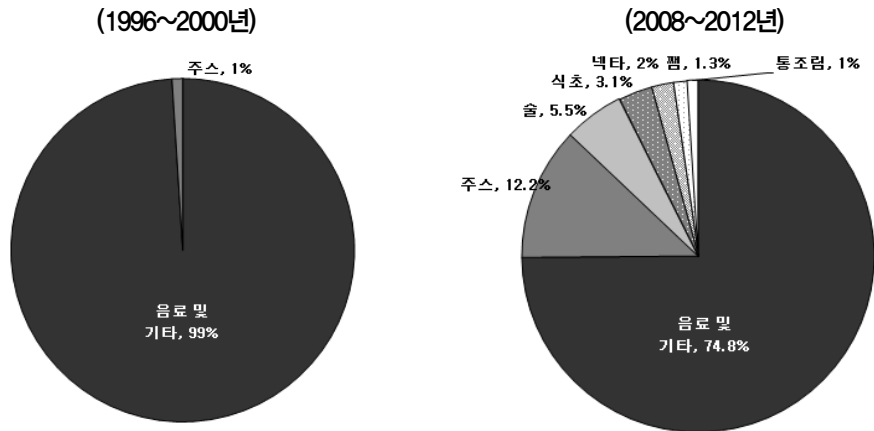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과실류 가공현황, 2012

2) “매실청 집에서 담가 볼까, 유통가 매실 바람.” 부산일보, 2014.06.09.(기사검색:2015.04.24.)

- 매실 가공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 매실가공품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음료 등에 편중되어 있어 가공에 의한 매실 수요의 증가에 한계가 있음. 특히 매실 음료의 경우 국내산 매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실음료의 수요 확대가 국내산 매실 수요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작용함.
 - 또한 매실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음료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구매 폭이 제한적이고 가공품의 매실 함량이 적거나 수입산 매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매실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조성환 외, 2006).
- 가공식품의 유형³⁾별 매실 가공 비중을 살펴보면, 음료 및 기타가 매실 가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주스, 술 등 다양한 용도로 가공되기 시작함.
 - 음료 및 기타 가공비중은 과거(1996~2000년)에는 전체 가공량 대비 99%에서 최근(2008~2012년)에는 74.8%로 감소함.
 - 주스 가공비중은 2010년에 전체 가공량 대비 42%까지 늘어났으나, 최근(2008~2012년)에는 12.2%를 차지함.
 - 술 가공비중은 2006년에 전체 가공량 대비 35%까지 늘어났으나, 최근(2008~2012년)에는 5.5%를 차지함.

3) 음료는 농축액, 과실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실즙 10% 이상), 주스는 과실을 물리적(압착, 분쇄 등)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실즙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한 것(과실즙 95% 이상), 벡타는 과실을 갈아 체로 걸러서 얻어지는 죽 상태의 액즙을 원료로 가공한 것을 말함.

가공식품 유형별 매실 가공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과실류 가공현황, 2012

4. 요약 및 시사점

- 매실은 2000년대 초에 그 효능이 드라마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함. 매실은 전통적인 주산지인 전남, 경남 지역뿐 아니라 경기, 충남 지역까지 재배지역이 크게 확대됨. 이런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생산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 매실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데, 과거에 비해 공급량 증가에 대한 가격 하락폭이 커져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산 매실의 가공 비율이 1990년대 후반에는 생산량의 평균 40%였으나, 최근 10% 내외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매실 가공품 소비에서 매실 장아찌나 효소 등을 가정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생과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
- 국내산 매실의 가공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료 및 기타’의 수요 확대는 국내산 매실 수요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수입산 가공원료를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산 매실 가공비중이 가장 높은 매실 음료가 국내산 매실 수요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원산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표시로 개편하거나,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산 원료를 이용한 감자칩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산 원료를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시판되고 있는 매실 가공품의 경우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매실 효능 인지, 선호 속성 및 선호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가공식품 개발 및 판매가 병행되어야 함.
- 시판되고 있는 매실 가공품에 들어간 매실의 함량이 낮거나 수입산 매실을 이용한 가공품이 많아 품질이나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가공품 구매를 꺼리고 직접 생과를 구매하여 집에서 가공하는 실정임. 매실 음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실 가공품은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 등에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매실 가공품 생산업체들의 연합 홍보, 마케팅 및 매실 가공품에 대한 품질·안전성을 인증하는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가정에서 만들어먹는 것보다 시중에서 구입하여 소비하는데 익숙한 젊은 세대의 향후 매실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임.

〈참고문헌〉

- 강진구·조경래. 2007. 「매실·유자 경영여건과 대응방안」. 월예경영연구속보. 농촌진흥청.
- 이용선 외. 2014. 「과일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 조성환 외. 2006. 「국내 매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 및 가공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개선*

김태곤**, 허주녕***

1. 직접지불제 역할

-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는 이행조건(cross compliance) 등 일정한 지불근거를 전제로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정책수단임. WTO 출범 이후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불문하고 현재 농업분야의 중요한 정책수단임.
- 직불제의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음.
 - ① 생산 중립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격지지제도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음.
 - ②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농지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음.
 - ③ 적절한 이행조건의 설정 등으로 합리적인 지역농업을 구축할 수 있음.
 - ④ 농가의 경영안정 보장과 함께 ‘식량자급력 향상’과 ‘다원적 기능 발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직불제의 지불근거

- 가격지지제도 폐지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경영안정 보장
 - WTO 농업협정에 근거한 국내 가격지지제도 폐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
 - EU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농정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 본고는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taego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knuhjin@krei.re.kr)

하되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불하는 ‘고정지불’과 농산물 가격하락분에 대해 일정비율 보전하는 ‘변동지불’로 구성됨.

- 경영안정과 관련한 주요 국가의 직불제에는 EU의 소득보상직불제(1992년), 미국의 고정직불제(1996년) 및 CCP(2002년), 한국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2005년), 그리고 일본의 쌀 소득보상 직불제(2007년) 등이 있음.
- 조건의 불리성에 대한 보전
 - 일반적으로 산간지역은 농업의 생산조건이 평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을 대상으로 평지지역과의 생산성(생산비, 소득) 격차를 보전하여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
 - 생산조건의 지역간 격차를 보전하여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경제활성화와 다원적기능 확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조건의 불리성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의 직불제는 EU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1972년),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불제(2000년) 및 한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2004년) 등이 있음.
- 다원적기능 확산에 대한 보전
 -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형성, 전통문화 등 농업의 다원적기능의 확산 및 유지가 주요한 목적임.
 - 초기에는 ‘환경부하 경감’을 유인하는 농법 도입에서 최근에는 경관이나 생물 다양성 등 ‘환경편익 증진’을 유인하는 농법 도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다원적기능 확산에 지원하는 주요 국가의 직불제는 EU의 환경농업 직불제(1985년), 미국의 환경직불제(1985년), 한국의 친환경농업 직불제(1999년) 및 일본의 자원환경 직불제(2007년) 등이 있음.
- 국내외 생산성 격차에 대한 보전
 - 농산물 수입국이 관세 철폐나 수입수량 제한 감축 등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 손실을 보상하거나 외국(수출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보전하여 시장개방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임.

- 농산물 수입국이 실시하는 직불제이며, WTO 체제나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국내의 생산성 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요 국가의 직불제에는 한국 FTA 피해보전 직불제(2004년), 일본 발작물 소득보상 직불제(2007년) 등이 있음.

3. 직불제의 기본구조와 개편방향

3.1.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 직불제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확산하는 등 크게 두 가지 역할이 기대됨. 주요한 역할에서 전자를 ‘경영안정형’이라 하고, 후자를 ‘공익형’ 또는 ‘다원적기능형’이라 함.
- 우리나라의 직불제 중에서 경영안정형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변동지불, FTA 피해보전 직불제 등이 있고, 공익형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지불, 발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이 있음.
-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일본이 직불제를 개편한 배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 첫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한·중·일 FTA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조건을 정비한다는 의미임.
 - 개혁의 방향은 농가소득지원제도 개선, 쌀정책 개혁 등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원적기능 직불제 도입, 수요가 증가하는 작물 진흥 등 지역정책을 병행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한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불제도 쌀 직불제의 감액 또는 폐지, 발작물 직불제의 강화, 다원적기능 직불제의 확충 등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쌀 직불제와 발작물 직불제가 기본형으로 유지되면서 중산간지역 직불제,

다원적기능 직불제 등은 가산형으로 지불되는 체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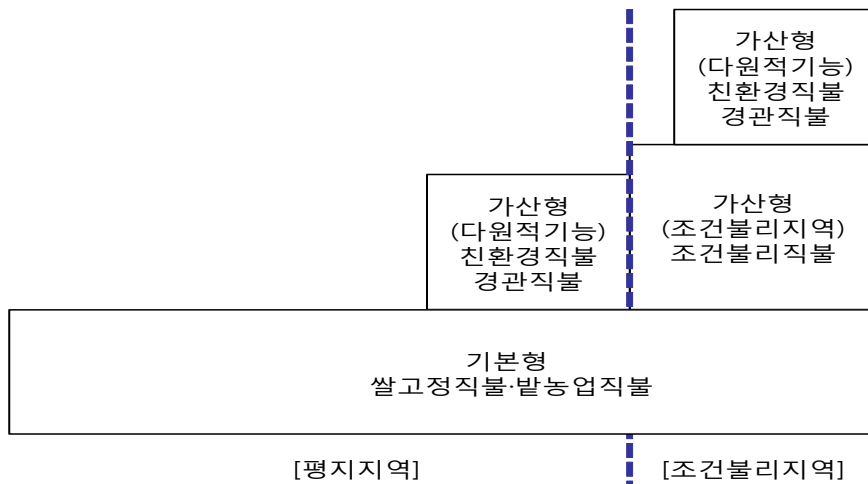
- EU는 소득보상 직불제에서 단일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생산 중립적이고 보다 단순화한 직불제로 전환하였음. 또한, 단일직불제는 2015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불제로 개편되었음.
 - 단일직불제는 ‘기본지불’을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산지불’로 구분하여 운영 예정이고, 단일직불제의 실시로 다원적기능 발휘, 특정지역에서 증산,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현행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환경농업 직불제’는 종전대로 가산형으로 유지하며,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유지와 환경농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 직불제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경영안정 보장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식량자급률 향상, 다원적기능의 발휘, 지역농업 유지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3.2. 직불제 개편 방향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직불제를 경영안정형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로 유형화 할 수 있음. 직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기본형(기본지불)으로 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가산형(가산지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기본지불에는 쌀 고정직불과 밭농업 직불제가 포함되고, 가산직불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이 포함됨.
 - 기본지불은 쌀고정직불, 밭농업직불임.
 - 가산지불은 일정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지불에 추가하여 지불되며, 친환경직불, 경관직불 등이 포함됨. 단지, 조건불리지역에서는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직불 등이 가산됨.

- 가산지불을 예를 들면 친환경직불은 친환경농법을 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친환경직불이 쌀 고정지불에 추가하여 지불되며, 조건불리지역에서는 조건불리직불이 지불되며, 조건불리지역에서 친환경농법을 이행하는 경우 여기에 추가적으로 친환경직불이 가산되는 구조임.

직불제 개편방향



자료: 김태곤·허주녕·전애라, 발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2014: 33)

4. 발농업 직불제 개선

4.1 도입배경과 과제

- 발농업 직접지불제는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의 수단으로 2012년 식량·사료 작물 및 일부 양념채소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음. 세부적인 지급기준에는 공부상 밭(田)에서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3년 2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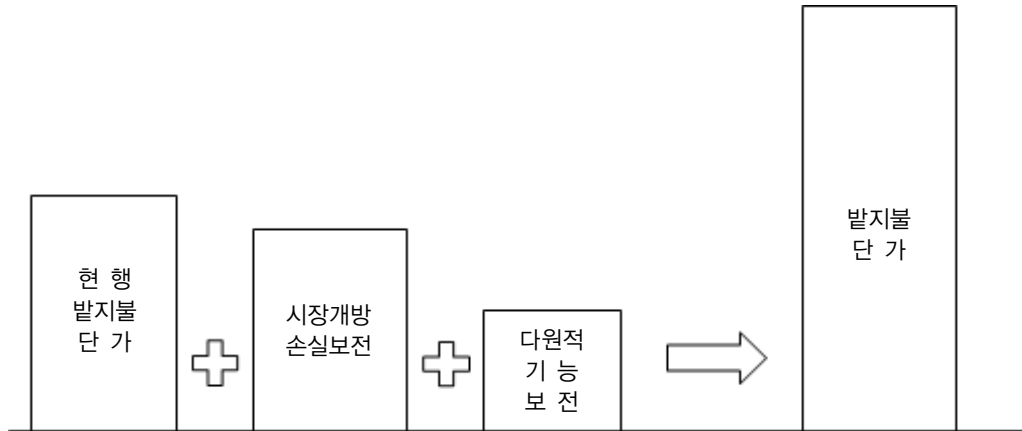
-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단가와 요건 등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법)에 따라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필요한 미비 사항을 완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 정의 및 대상자, 대상품목, 대상 범위 등 지급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4.2. 개선 방향

가. 지불 근거와 기준

-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지급 근거는 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다원적기능 보전 및 지역공동체 유지 등에 있음. 따라서 밭농업 직접지불제(이하 밭고정지불)의 지불근거는 밭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다원적기능의 보전과 확산에 있음.
 - 논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밭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파급영향이 민감함.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액의 보전으로 밭농업의 지속성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직접적으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여 직접지불제 개편에 따라 추가적인 근거와 기준단가의 보완 작업이 요구됨.
- 국내 직접지불제는 기존 직불제도를 기본형과 가산형 형태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한·중 FTA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손실을 대비하고, 밭농업의 다원적기능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발농업 직불제 기준 단가



자료: 김태근·허주녕·전애라, 발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2014: 40)

- 향후 발농업 직불제의 개편에서 기준단가는 ①기존 발농업 직불제 단가, ②추가적인 시장개방 손실보전액, ③발농업의 다원적가치 등을 종합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나. 대상 품목

- 현행 발농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으로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지를 의미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제와 관련한 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발농업 직불대상 농지의 기준을 기존 쌀 관련 직불제의 근거 등을 종합하여 제도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발농업 직불제의 대상품목은 제도의 목적 부합성, 타직불제의 형평성, 재정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고, 대상 작물에는 식량,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 기타작물, 시설작물 등의 포함 여부를 고려해야 함. 발농업 직불제 대상 품목의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전체 품목 확대(1안)
 - 전체 품목에서 시설작물 제외(2안)

- 전체 품목에서 과수품목 제외(3안)
- 전체 품목에서 시설작물과 과수품목 제외(4안)

발농업 직불제 대상품목 확대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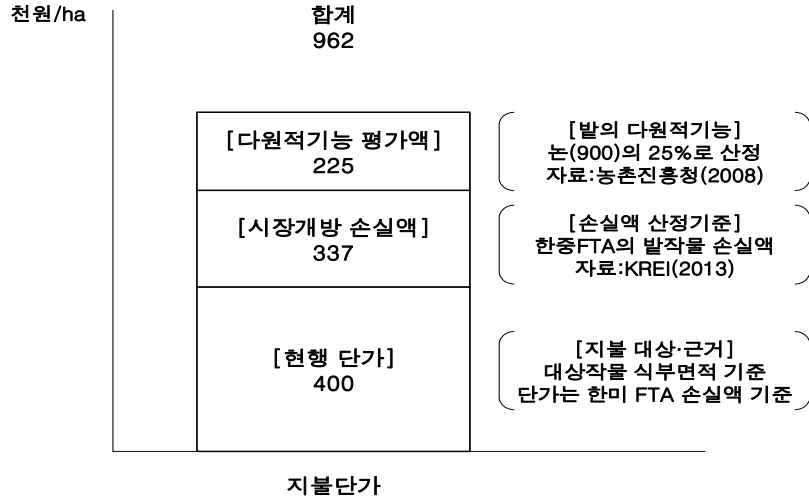
	전체 품목 확대	일부 품목 제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소득확대 긍정 · 식량자급률 제고와 다원적기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차별 보조에 대한 국민 저항 감소 · 재정 건전성 부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품목 보조금 지원 비판 · 타직불과 보조금 형평성 유지 곤란 · 재정 건정성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제외에 따른 생산자 반발 · 직불제 세부요건 등에 대한 제도 정비 · 추가적 행정비용 증가

자료: 김태곤·허주영·전애라, 발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2014: 42)

다. 지불단가

- 발농업 직불제가 고정형으로 개편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지불단가는 ① 현행 단가, ② 한·중 FTA에 따른 시장개방 손실 보전액, ③ 발농업의 다원적기능 보전 금액 등을 합산하여 설정할 수 있음.
- 현행 발농업 직불제 단가 40만원/ha에 시장개방 손실보전액 337천원, 다원적 기능 보전액 225천원을 합산한 지불단가는 962천원임. 지불단가(안)은 재정적 여건과 타 직불제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발농업 직불제 지불단가 구성



자료: 김태근·허주녕·전애라, 발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2014: 48)

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

5.1. 도입배경과 과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산과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상 지역은 농경지의 경지율이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의 농지가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
 - 도서지역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가 대상
 - 조건불리지역 대상이지만,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 등에 활용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면적은 47만 5천 ha이지만, 2011~2013년 평균 신청 면적은 10만 2천 ha로 대상 농지의 21.5%로 저조한 실정임. 특히, 해당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불일치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2년 전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에서 조건불리지역 경지는 47만 5천 ha이고, 농지는 45만 ha, 초지는 2만 4천 ha임.
 - 지목상 농지에서 논은 10만 ha, 밭은 33만 6천ha, 과수원은 1만 3천 ha임.
 - 최근 3개년(2011~13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 법정리의 평균은 3,412호
- 직불제 개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가산형 전환과 세부적으로 지급상한 설정, 대상 동지역 조정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

5.2. 개선 방향

가. 밭농업 직불제와 연계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불리한 생산여건에 따른 격차와 농업의 지속성 유지, 식량안보 등 다원적기능 확산 및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직접지불제와의 차별성이 있음.
- 직불제의 개편 과정에서 현재 직불제를 고정형과 가산형 지불의 형태로 운영한다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가산형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특히, 밭농업 직불제의 개편에 따라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밭농업 직불제(기본형)에 추가하여 지불하는 형태(가산형)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불단가는 평지지역과의 생산비 격차를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 원칙임.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는 현행 단가에 추가로 가산되는 단가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지불제와 형평성 문제와 재정균형 문제 등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임.

나. 지불방식

-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단가는 논·밭·원 50원/m², 초지 25원/m²이고, 지원 단가에서 국고 80%, 지방비 20%를 부담
 - 현재 제도에서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재정부담 감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직접 생산격차와 한계농지와 유휴농지의 확대를 억제하여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 및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가산형으로 전환된다면 목적 부합성과 타직불제와의 형평성 및 재정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기존 지불 단가의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임.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불단가는 현행 단가의 30%, 50%, 70%, 100% 등 세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산형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불단가 개편(안)



자료: 김태근·허주녕·전애라, 발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2014: 64)

다. 세부 개선 방안

- 현행 직불제를 개편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가산형으로 운영한다면 타직불제와의 형평성과 재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직불금 상한지급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조건불리지역의 밭농업 여건을 고려한다면 농기계 활용 애로 등으로 소규모의 면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공동체와 지역농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밭농업 하한면적의 완화도 필요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마을공동기금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고 부담률의 인상이 필요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행 쌀소득보전 직불, 친환경직불등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실시되고 있음.

6. 직불제 실효성 확대방안

- 직불제는 가격이나 소득 하락에 의한 경영안정 보장, 식량안보 등과 관련한 전략작물의 생산 증대, 조건불리지역에서의 농업 유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확산, 시장개방에 따른 손실 보상에 의한 국내농업 유지 등의 역할을 기대하여 실시되고 있음.
- 현행 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면적 축소의 요인이 되는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다음으로 이행조건의 준수를 위해서는 제도별 이행조건에 대한 인식과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가.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

- 1994년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하는 대신에 이용규제(임대차금지 등)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전환하였음. 특히,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음.
 - 농지법 시행이후 도시민의 농지 매입이 늘어나는 동시에, 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임대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 농지임대차를 통한 농가의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는 효과는 있지만, 직불제가 확산에 따른 지급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직불제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① 직불제는 일정한 이행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경작자에게 지불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임대차 농지의 경우 직불금의 일부가 농지소유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② 농지법상의 임차금지 규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감면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임대차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위장경작’이나 ‘직불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잠복되어 있음.
 - ③ 직불제의 대상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경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직불제 신청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 현재 발농업 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실시면적이 계획보다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구조의 개선과 직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농지법 특례 규정(제22조)을 확장하여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여, 임대차 당사자 간에 수탁기간 및 임차료 등을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
 - 단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대 조치로서, 첫째,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임대료의 5%)는 기금 예산을 활용하여 이를 감면하고,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이를 자경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이행조건의 설정

- 직불제는 직불금 지불의 대가와 연계하여 수급자가 이행조건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즉, 일정한 수준의 이행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직불금을 지불하여 직불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밭농업 직불제는 신청서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외에는 특별한 이행조건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이행조건의 점검에 필요한 인력부족이나 수급자·실무자 등의 인식부족 등의 요인에 의해 점검업무 자체가 소홀히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밭농업 직불제의 경우 종전의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수준의 이행조건 설정이 적절함. 밭농업 직불제는 지불방식을 고정지불로 전환하는 것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행조건의 설정이 가능함.
 - ① 농지에 대한 성실경작
 - ② 화학비료의 권장시비량 및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등의 설정과 준수
 - ③ 농지,수로 및 그 주변지역의 폐플라스틱·폐비닐·빈 농약병 등 수거
 - ④ 논두렁 및 밭 사면에 대한 제초·수선 활동 등에 의한 적절한 관리 등을 이행 조건으로 설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다. 확인과 점검의 강화

- 직불제가 농정의 보편적인 수단이 되고 있고, 소요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국민적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직불제별 목적의 명확화, 대상 농가 및 농지의 한정, 부당수령 방지, 이행조건 준수 등이 요구됨.
- 직불제는 실시목적에 따라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구분하여, 기본형은 농지면적을 단위로 지불하는 고정지불방식으로, 그리고 가산형은 특정 목적에 따라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 준수를 전제로 농지면적당 또는 생산물 단위당으로 설계해야 직불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직불제의 실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의 확인, 이행조건의 점검 등의 업무가 필요 불가결함. 대상농가별로 대상농지 또는 재배작물 확인, 실시 과정 검증, 철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요구됨.
- 직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체등록제 등과 같은 농가별 정보 확보, 이행조건 점검업무의 일관화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